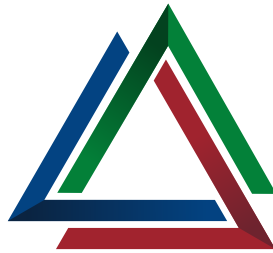


조 사 보 고 서



한 중 일
지방도시 교류 202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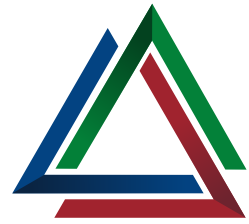
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
China International Friendship Cities Association



CLAIR
- AIRA -
自治体国際化協会

이 보고서는 [TCS 공식 홈페이지\(www.tcs-asia.org\)](http://www.tcs-asia.org)에서
한·중·일·영 4개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2022



서 문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에서는 3국 간 지방정부 교류의 선행사례와 방법론에 대해 그간 부족했던 정보의 공백을 메우고, 3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업데이트된 최근 교류현황을 반영하고, 이전 사례에 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으며 올해는 한중일 각 1개 지도의 단체장 인터뷰도 추가하였습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지방도시 및 관련기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999년 제3차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국 정상 간 최초의 조찬회동 이후, 3국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ASEAN+3 정상회의와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외교, 경제, 재난관리, 환경, 보건, 문화, 교육 등 21개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가 운영 중입니다. 민간과 지방 차원에서도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비전」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2030년까지 내다보는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TCS도 2011년에 설립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협의체와 협력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년의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면서 3국 협력 발전에 더욱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3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류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IT기술 활용으로 한중일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오히려 끊임없이 추진되었으며, 교류의 내용 또한 한층 내실화 되고 다양해졌습니다. 사업실시와 경비 면에서의 부담을 덜면서도 참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게 된 덕분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교류의 기회를 발견했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3국 지방 정부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와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염병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호 협력에 있어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무국은 향후 10년 '공동의 번영, 지속적인 평화, 공유하는 문화' 라는 기치하에 한중일 3국의 협력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3국 중앙부처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지방교류의 최신 현황과 사례가 공유됨으로써 이후 3국 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한층 더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어우 보첸(歐渤芊)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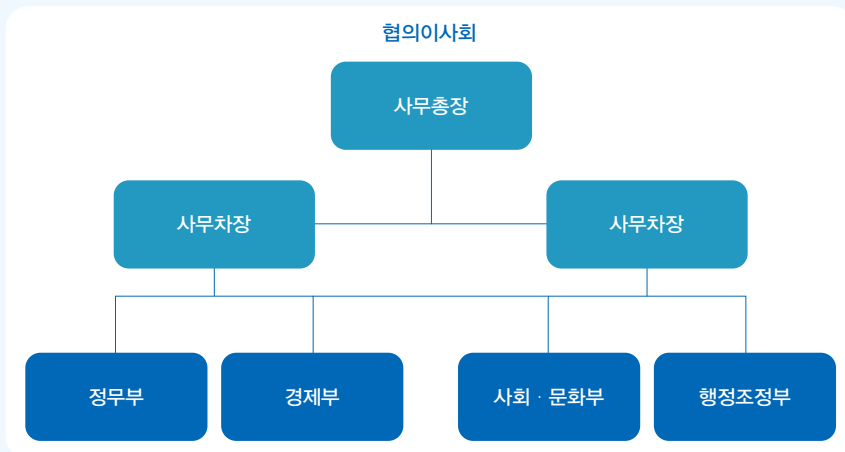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개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ri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일본국(이하 '일본')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기능

-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기타 장관급 회의 등 3국 협의체 지원 및 필요시 참석
- 3국 정부 및 필요한 경우 그밖의 국제기구, 특히 다른 동아시아 협력체와 연락 및 조정
- 3국 정부간 잠재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확인, 그리고 그 사업의 채택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에 대한 보고 수행
- 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필요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간 실적보고서의 제출
- 3국 협력 관련 중요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3국 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조직구조



협의이사회

협의이사회는 사무국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중일 각국이 2년마다 윤번제로 임명하는 1명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과 2명의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으로 구성됩니다.

6대 협의이사회 (2021.9 - 2023.8)

사무총장	중국	어우 보첸(歐渤芊)
사무차장	한국	백범흠
사무차장	일본	사카타 나츠코(坂田奈津子)

부서

3국 정부에서 파견된 부장급 인력과 한중일 각국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된 담당관으로 구성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무부	경제부	사회·문화부	행정조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 안보 • 역내이슈 • 국제이슈 • 재난방지·관리 • 싱크탱크 네트워크 •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 교통·물류 • 세관 • 지적재산권(IPR) • 정보통신기술(CT) • 금융 • 과학기술 • 표준화 • 에너지 • 소비자정책 • 환경보호 • 농업 • 수자원 •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 청소년교류 • 교육 • 보건복지 • 관광 • 지방정부 교류 • 인사행정 •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 • 인사 • 행정·법적지원 • 예산·회계 • 기록관리

연혁

- 1999.11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간 첫 조찬회동(필리핀 마닐라)
- 2008.12 아세안+3 정상회의와 별도로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일본 후쿠오카)
- 2009.10 제2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중국 베이징)
- 2010.05 제3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한국 제주)
- 2010.12 한중일 3국 정부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서명(한국 서울)
- 2011.09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설립(한국 서울)
- 2012.05 제5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중국 베이징)
- 2015.11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한국 서울)
- 2016.09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기념 리셉션(한국 서울)
- 2018.05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일본 도쿄)
- 2019.12 제8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중국 청두)
- 2021.04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설립 10주년 기념 사진전(한국 서울)

목차

서 문		1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개요		2
편집자의 말		5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개관		6
영문약칭		8
제1장	3개 도시·지역 간 교류	9
	여수시(한) – 양저우시(중) – 가라쓰시(일)	10
	강원도(한) – 지린성(중) – 돛토리현(일)	12
	서울특별시(한) – 베이징시(중) – 도쿄도(일)	16
	인천광역시(한) – 다롄시(중) – 기타큐슈시(일)	19
	경기도(한) – 랴오닝성(중) – 가나가와현(일)	24
	경상남도(한) – 산둥성(중) – 야마구치현(일)	28
	전라북도(한) – 장쑤성(중) – 이시카와현(일)	31
	창녕군(한) – 한중시(중) – 사도시(일)	33
	군포시(한) – 린이시(중) – 아초기시(일)	36
	전주시(한) – 쑤저우시(중) – 가나자와시(일)	38
	광주광역시(한) – 취안저우시(중) – 요코하마시(일)	42
	서울특별시 중랑구(한) – 베이징시 동청구(중) – 도쿄도 메구로구(일)	49
	청주시(한) – 칭다오시(중) – 니가타시(일)	53
	제주특별자치도(한) – 닝보시(중) – 나라시(일)	61
	부산광역시(한) – 상하이시(중) – 나가사키현(일)	69
	대구광역시(한) – 창사시(중) – 교토시(일)	72
	부산광역시(한) – 하얼빈시(중) – 가나자와시(일)	78
	인천광역시(한) – 시안시(중) – 도쿄도 도시마구(일)	81
	순천시(한) – 양저우시(중) – 기타큐슈시(일)	84
	경상북도(한) – 산시성(중) – 에히메현(일)	86
	순천시(한) – 사오싱시·둔황시(중) – 기타큐슈시(일)	88
	경주시(한) – 원저우시·지난시(중) – 오이타현(일)	90
제2장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메커니즘 및 행사	91
	동아시아문화도시	92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99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101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106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	108
특별세션: 한중일 지방정부 단체장 인터뷰		110
협력기관		119
기타 TCS 출판물 및 웹사이트		120

편집자의 말

• 이 조사보고서의 제목은 편의상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이지만, 실제로는 시(市)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道)’,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 및 ‘구(區)’ 차원의 교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자매도시 관계를 기반으로 민간단체나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관련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류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

• 국명과 지명이 나열되는 순서는 출판언어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국어판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단, 관계도는 개별 사례에 따라 개최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지역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제1장에서 교류도시들의 그룹을 배열할 때에는 3자 간 교류가 시작된 연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호칭에 대해서는 같은 교류도시 그룹 안에서도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판에서 한중 또는 한일 양자 간 관계를 지칭할 경우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기만을 기재했습니다. 중일 간 교류관계에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두 나라에서 다르게 쓰일 경우, 한국어판에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매·우호도시’ 또는 ‘우호·자매도시’로 병기하였습니다.

• 정보의 양과 교류사업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각 교류도시 그룹별로 최대 9쪽까지 분량을 할애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의 조사범위는 한중일 3국 간 교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한중일이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3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위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교류가 있었지만, 2022년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실시될 행사에 관한 내용은 사전조사에 따른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92쪽 참조)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매우 많은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조사 범위를 후속 교류사업에 한정하였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일부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사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이메일(ter@tcs-asia.org)을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개관

이 보고서에 소개된 22개의 교류도시 그룹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현재 한중일 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국별 지방정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한 곳에서 복수의 교류도시 그룹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숫자는 교류도시 그룹 전체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 한국: 19개 지자체[6개 도(道), 11개 시(市), 1개 군(郡), 1개 구(區)]
- (2) 중국: 23개 지자체[5개 성(省), 17개 시(市), 1개 구(區)]
- (3) 일본: 19개 지자체[1개 도(都), 7개 현(縣), 9개 시(市), 2개 구(區)]

2

교류 배경

- (1) 우호·자매도시·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기반으로 한 교류: 13개 그룹
[참고] 한중일 간 우호·자매도시 양자교류 현황
 - 한국(2021.12 기준): 672건(중국), 208건(일본)
 - 중국(2021.12 기준): 181건(한국), 213건(일본)
 - 일본(2022.2 기준): 165건(한국), 378건(중국)
- (2)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 9개 그룹(2014~2022년)
⇒ 향후 매년 1개 그룹씩 증가 예정

3

교류 분야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역에 걸쳐있거나 하나의 교류도시 그룹이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숫자는 교류도시 그룹 전체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교류사업이 경제나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사업보다 많다.

- (1) 청소년 교류: 10개 그룹
- (2) 문화 교류: 10개 그룹
- (3) 바둑: 3개 그룹
- (4) 경제: 2개 그룹
- (5) 스포츠: 3개 그룹
- (6) 박물관: 2개 그룹
- (7) 도서관: 1개 그룹
- (8) 환경(따옴기보호 포함): 2개 그룹
- (9) 관광: 1개 그룹
- (10) 교령화·노인복지: 1개 그룹

4

교류 대상(연령별)

하나의 교류도시 그룹이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숫자는 교류도시 그룹 전체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교류사업은 성인을 참가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교류의 경우 중고생 이상이 많다.

- (1) 초등학생: 1개 그룹
- (2) 중학생: 1개 그룹
- (3) 고등학생: 4개 그룹
- (4) 중고생 혼합: 3개 그룹
- (5) 대학(원)생: 3개 그룹
- (6) 성인: 20개 그룹
 - 문화인·운동선수 중심: 14개 그룹
 - 공무원 등 실무자 중심: 4개 그룹
 - 정부·민간 공동참여(기업가, 전문가 등 포럼 참가): 2개 그룹

5

참가 지방정부 규모

22개의 교류도시 그룹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 그룹이 시·군 간 교류에 속한다.

- (1) 도(道)·성(省)·현(縣) 단위: 5개 그룹
- (2) 시(市)·군(郡) 단위: 11개 그룹
- (3) 구(區) 단위: 1개 그룹
- (4) (1)과 (2)의 혼합: 4개 그룹
- (5) (2)와 (3)의 혼합: 1개 그룹

6

교류 시작시기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는 주로 90년대 말 혹은 2015년 이후 시작된 경우가 많다. 최초의 한중일 정상 간 회동도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 교류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매년 1개 그룹씩 증가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비교적 최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중 많은 문화도시들이 현재까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 (1) 1994년 이전: 1개 그룹
- (2) 1995년 - 1999년: 4개 그룹
- (3) 2000년 - 2004년: 2개 그룹
- (4) 2005년 - 2009년: 1개 그룹
- (5) 2010년 - 2014년: 3개 그룹
- (6) 2015년-2019년: 8개 그룹
- (7) 2020년-2022년: 3개 그룹

7

교류 장소

한중일 3개 도시 혹은 지역 간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한 교류사업은 대부분 순환 개최로 운영되고 있다(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 제외). 현재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은 대부분 각 도시별로 청소년 교류나 문화협력 사업을 개최하고 파트너 도시들이 이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1) 한중일 3국 순환 개최: 12개 그룹
- (2) 연속 개최: 10개 그룹
 - 동아시아문화도시: 9개 그룹
 - 기타: 1개 그룹

영문약칭

AIR	Artist In Residence
APT	ASEAN Plus Three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CEA	Culture City of East Asia
CJK	China-Japan-Korea
CLAIR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EATOF	East Asia Inter-Regional Tourism Forum
GAOK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KYOTO STEAM	Kyoto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EAED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TBD	To Be Determined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제1장

3개 도시 · 지역 간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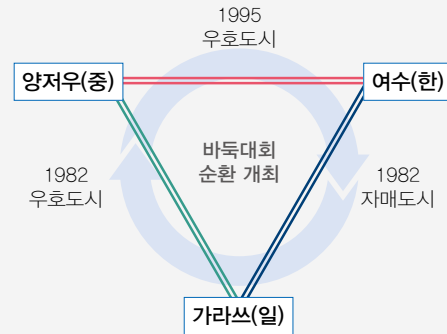
여수시(한) – 양저우시(중) – 가라쓰시(일)

1999년부터 지속된 친선바둑교류

전라남도 여수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揚州市),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唐津市) 간 교류는 양저우시와 가라쓰시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198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3월에 여수시와 가라쓰시도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3년 3개 도시간 시장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 여수시와 양저우시가 우호결연 협정을 체결하면서 3자교류 구도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세 도시는 1999년 이후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친선바둑대회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지방교류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례다.

한편 중국 양저우시는 한국 순천시,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1999년~: 3개 도시 간 친선바둑대회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친선바둑대회는 바둑경기를 통해 여수시, 양저우시, 가라쓰시 3개 도시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시작되었다. 매년 3개 도시가 순환 개최하며, 2019년 21회째를 맞이했다.



제21회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친선바둑대회

사진제공
가라쓰시

▶ 자료제공
여수시, 가라쓰시

개최 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도시
제1회	1999년 7월 5일(월)~11일(일)	양저우시
제2회	2000년 5월 3일(수)~6일(토)	여수시
제3회	2001년 6월 29일(금)~7월 2일(월)	가라쓰시
제4회	2002년 11월 15일(금)~19일(화)	양저우시
제5회	2003년 10월 16일(목)~20일(월)	여수시
제6회	2004년 8월 6일(금)~8일(일)	가라쓰시
제7회	2005년 6월 26일(일)~29일(수)	양저우시
제8회	2006년 10월 25일(수)~28일(토)	여수시
제9회	2007년 8월 28일(화)~31일(금)	가라쓰시
제10회	2008년 10월 17일(금)~20일(월)	양저우시
제11회	2009년 9월 17일(목)~19일(토)	여수시
제12회	2010년 8월 23일(월)~26일(목)	가라쓰시
제13회	2011년 10월 21일(금)~24일(월)	양저우시
제14회	2012년 10월 18일(목)~20일(토)	여수시
제15회	2013년 8월 29일(목)~31일(토)	가라쓰시
제16회	2014년 10월 16일(목)~19일(일)	양저우시
제17회	2015년 11월 29일(목)~31일(토)	여수시
제18회	2016년 11월 11일(금)~13일(일)	가라쓰시
제19회	2017년 11월 6일(월)~9일(목)	양저우시
제20회	2018년 11월 15일(목)~17일(토)	여수시
제21회	2019년 11월 9일(토)~10일(일)	가라쓰시
제22회	2022년 [예정]	양저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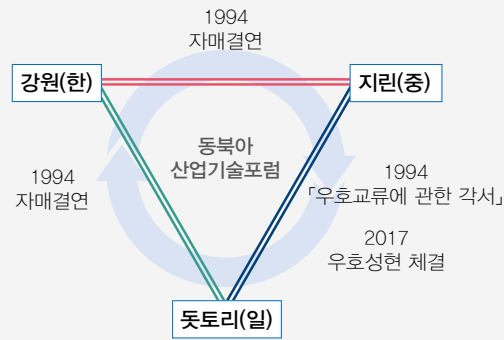
강원도(한) – 지린성(중) – 돛토리현(일)

러시아, 몽골 등과 더불어 도(道)·성(省)·현(縣) 간 활발한 경제 교류

강원도, 중국 지린성(吉林省), 일본 돛토리현(鳥取縣)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바탕으로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과 함께 1990년대부터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 세 지방정부 간 교류는 강원도와 지린성이 1994년 6월 자매결연을 맺고, 지린성과 돛토리현이 1994년 9월 「우호교류에 관한 각서」(2017년 우호현성 체결)를 체결한 후, 강원도와 돛토리현이 1994년 11월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데서 출발한다. 이들 3개 지역 간 대표적인 정례행사는 2008년부터 순환 개최하고 있는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으로 최근에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는 한중일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 범위의 교류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의 제안에 따라 창설된 강원도의 제안에 따라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는 1994년,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은 2000년부터 매년 회원 지방정부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다.



제10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사진제공 강원도

제7회	2017년 9월	강원군 평창군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에서의 혁신 참여방안 등
제8회	2018년 9월	지린성 창춘시	국제 과학기술 협력 및 동북아 지역 혁신발전
제9회	2019년 10월	돛토리현 요나고시	식품 분야 기술 연구
제10회	2021년 10월	강원도 춘천시 (비대면 개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및 산업패러다임 변화대응 전략
제11회	2022년[예정]	지린성	미정



2008년~: 「산업기술교류 협약」 체결,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순회 개최

2006년 개최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에서 합의된 첨단산업 기술교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08년 강원도 경제산업국장, 지린성 과학기술청장, 돛토리현 상공노동부장이 「산업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세 지방정부는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개최 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도시	주제
제1회	2008년	강원도 춘천시	동북아 지역의 첨단산업 기술교류 협력 사업 발굴
제2회	2011년	지린성 창춘시	산업정책·인프라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 및 지역 활성화 모델, 첨단산업 및 글로벌 교류 협력, 동북아 우호도시(도성현)간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공동 추진
제3회	2012년	돛토리현 요나고시	생명공학, 인재육성
제4회	2013년 9월	강원도 춘천시	한중일 3국 지방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 및 기업체의 산업 기술 발표
제5회	2015년 9월	지린성 지린시	
제6회	2016년 9월	돛토리현 요나고시	신소재·지역의 특색있는 산업

2009년·2014년: 우호교류 기념행사

2009년 지린성 창춘시는 강원도, 돛토리현, 시마네현과의 우호교류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한중일 국제문화 미식축제, 8월 한중일 청소년 친선탁구경기를 각각 개최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우호교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린성에서 강원도, 돛토리현, 시마네현과의 양자 간 교류사업과 더불어 한중일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청소년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한중일 교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이 돛토리현에서 개최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한중일 3개국 및 캐나다 앨버타주(강원도 우호도시 40주년 기념)를 포함하는 4개국 교류역사사진전 및 어린이미술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강원도, 지린성, 돛토리현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의 회원 지방정부로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와 함께 이 회의를 순회 개최해왔다. 각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매년 이 회의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도시
제1회	1994년 11월	한국 강원도 속초시
제2회	1995년 11월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제3회	1996년 11월	한국 강원도 홍천군
제4회	1997년 8월	일본 돗토리현 돗토리시
제5회	1998년 8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제6회	1999년 10월	한국 강원도 속초시
제7회	2000년 11월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제8회	2002년 9월	중국 지린성 연길시
제9회	2004년 7월	몽골 튜브도
제10회	2005년 11월	한국 강원도 춘천시
제11회	2006년 8 - 9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제12회	2007년 10 - 11월	일본 돗토리현
제13회	2008년 9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제14회	2009년 7월	몽골 튜브도
제15회	2010년 5월	한국 강원도 평창군
제16회	2011년 9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제17회	2012년 4월	일본 돗토리현
제18회	2013년 10 - 11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제19회	2014년 7월	몽골 튜브도
제20회	2015년 5 - 6월	한국 강원도 속초시
제21회	2016년 8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제22회	2017년 10월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
제23회	2018년 10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제24회	2019년 7월	몽골 튜브도
제25회	2021년 10월	한국 강원도 강릉시 (비대면 개최)
제26회	2022년[예정]	중국 지린성

2000년~: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간 긴밀한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동아시아 관광의 세계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의 주도 하에 2000년 창설되었다. EATOF 상설사무국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다.

EATOF에는 국가별로 지방정부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을 비롯해 몽골 튜브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주, 필리핀 세부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베트남 광닌성, 캄보디아 씨엠립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등 10개국에서 1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회는 격년제로, 상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출처
▶
EATOF 홈페이지

총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지
제1회	2000년 9월	한국 강원도
제2회	2001년 9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주
제3회	2002년 9월	필리핀 세부주
제4회	2004년 9월	일본 돗토리현
제5회	2005년 9월	중국 지린성
제6회	2006년 9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제7회	2007년 9월	태국 치앙마이주
제8회	2008년 7월	몽골 튜브도
제9회	2009년 9월	한국 강원도
제10회	2010년 9월	베트남 광닌성
제11회	2011년 9월	필리핀 세부주
제12회	2012년 11월	캄보디아 씨엠립주
제13회	2013년 10월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제14회	2014년 9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제15회	2016년 10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주
제16회	2018년 8월	일본 돗토리현
제17회	2022년[하반기 예정]	베트남 광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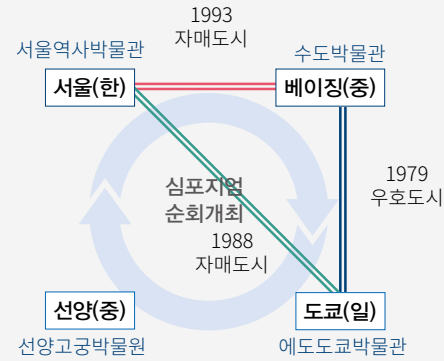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한) – 베이징시(중) – 도쿄도(일)

3국 수도 간 자매·우호관계를 기초로 한 박물관 협력, '4자' 교류로 확대

1979년 베이징(北京)–도쿄(東京), 1988년 서울–도쿄, 1993년 서울–베이징 간 각각 자매·우호 협정이 체결되었다. 1995년 3월 3개 수도의 수장들이 「베세토(BESETO)협력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하면서 '트라이앵글' 협력체제가 구축되었지만 지자체 간 협력보다는 주로 미술·연극제 등 민간 차원의 교류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은 박물관교류가 있다.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중·일 박물관과 연계하여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정례화 되었다. 그후 2006년 중국측 제안에 의해 선양(瀋陽)고궁박물관이 참여하여 4개 박물관이 심포지엄을 순환개최하게 되었다. 10년 넘게 심포지엄을 통한 교류를 지속해 온 결과, 최근에는 서울, 베이징, 도쿄 중 2개국 박물관 간 전시교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물관을 통한 한중일 지방교류 사례는 아직 수가 많지 않지만 이외에도 '인천광역시(한)–다롄시(중)–기타큐슈시(일)' 순회전시 등이 있다.



2002년 10월: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서울에서 개최, 정례화에 합의

중일수교 30주년, 한중수교 10주년이자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은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되었다. 이 해 10월 25일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같은 해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에도도쿄박물관이,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수도박물관이 참가했다.

'21세기 박물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3국 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은 3개 박물관의 관장과 학예원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 이 심포지엄은 원래 정례화를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니었지만 참석자들 간 교류의 의미와 이러한 소통이 지속될 필요성에 공감을 이루어냄에 따라 이듬해부터 순환제로 개최되었다.

2006년 이전 개최 실적

개최년도(회차)	개최도시	개최년도(회차)	개최도시
2002(제1회)	서울	2005(제4회)	서울
2003(제2회)	베이징	2006(제5회)	베이징
2004(제3회)	도쿄		

2007년~: 선양고궁박물관 참가, 4자 교류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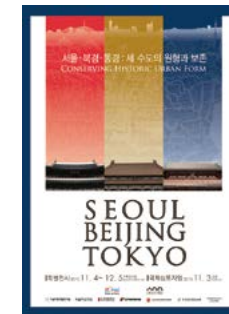
2007년 수도박물관의 제안에 따라 선양고궁박물관도 심포지엄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4자교류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차기 포럼은 2022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개최 실적

개최년도(회차)	개최도시	개최년도(회차)	개최도시
2007(제6회)	도쿄	2014(제13회)	베이징
2008(제7회)	선양	2015(제14회)	도쿄
2009(제8회)	서울	2016(제15회)	선양
2010(제9회)	베이징	2017(제16회)	서울
2011(제10회)	도쿄	2018(제17회)	베이징
2012(제11회)	선양	2019(제18회)	도쿄
2013(제12회)	서울	2021(제19회)[예정]	서울

▶ 2010 행사 포스터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2010년 11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최초의 한중일 특별기획전 개최

2010년 11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서울·북경·동경, 세 수도의 원형과 보존'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11월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중일 세 수도의 도시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도시의 원형과 유산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13년·2015년: 서울역사박물관·수도박물관 공동 기획전시

서울역사박물관과 베이징의 수도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기획전시회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베이징 3000년, 수용과 포용의 여정' 전시에 이어 2015년 수도박물관에서 '수로도시, 서울: 청계천의 변천' 전시가 개최되었다.

2017년·2018년: 수도박물관·에도도쿄박물관 공동 기획전시

베이징의 수도박물관과 에도도쿄박물관은 2002년부터 지속되어 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연구와 교류전시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2017년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에도도쿄박물관에서 '에도와 베이징-18세기 도시와 생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이어 2018년 8월 14일부터 10월 7일에는 수도박물관에서 '도시·생활 - 18세기 도쿄와 베이징' 전시가 열렸다. 두 전시는 18세기 베이징과 에도의 형성과정, 생활, 문화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방문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쿄에서는 베이징 관련 자료를, 베이징에서는 도쿄 관련 자료를 더 많이 전시하도록 했다.

에도도쿄박물관의 홍보 자료에 의하면, 해당박물관의 소장품이 중국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50일간 27만 8,790명(하루 평균 5,576명)이 전시회를 방문했으며, 많은 매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또한 전시기간 중 제17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8월 15일 수도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 (좌) 도쿄 전시회
(우) 베이징 전시회
사진제공
에도도쿄박물관

2019년: 서울역사박물관·에도도쿄박물관 공동 기획전시

에도도쿄박물관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과 최초로 공동전시 '유만주의 한양'을 개최했다. 1755년 한양(현재의 서울)에 태어난 유만주는 20세가 되던 1775년부터 사망한 1788년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일기를 썼다. 유만주의 일기를 통해 18세기 후반 한양의 풍경과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전시는 앞서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전시회 첫날인 22일에는 '도시의 기능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제18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 도쿄 전시회
사진제공
에도도쿄박물관

2022년[예정]: 서울역사박물관-에도도쿄박물관 국제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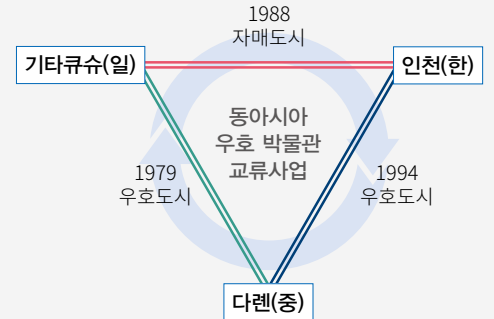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은 2022년 9~10월 '에도시대 스미다 강(隅田川)의 도시풍경'을 주제로 한 답방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도)의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스미다 강을 배경으로 한 회화, 지도류 등의 유물을 통해 근세 일본의 도시 풍속과 생활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세 박물관은 9월 4~7일 '도시박물관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9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인천광역시(한) – 다롄시(중) – 기타큐슈시(일)

항구도시 간 박물관 교류, 순회 전시로 착실하게 성과 쌓아 올려

한국 인천광역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大連市),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근대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도시간 교류는 다롄시와 기타큐슈시가 1979년 체결한 우호도시협정과 당시 인천직할시와 기타큐슈시가 1988년 체결한 자매결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기타큐슈시 및 시모노세키시와 자매·우호관계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4개 도시(한국-부산, 인천, 중국-다롄, 칭다오)로 구성된 '동아시아 도시회의'와 '동아시아경제인회의'〔한·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의 전신〕가 발족했다. 이후 1994년 당시 인천직할시와 다롄시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중일 간 트리아앵글 자매·우호관계가 형성되었다.



세 도시는 현재 시립 박물관 간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생명의 여행 박물관)과 다롄시 류순박물관은 2010년 11월 서명한 합의서(2010-2015)에 따라 박물관 교류를 시작한 이후 매년 관장회의 및 사진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제2회 관장회의 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순회전시 및 공동기획전시를 시작했다. 2015년 제5회 관장회의에서는 2기째가 되는 합의서(2016-2021)에 서명하고 이어 2016년 체결한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순회전 개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격년으로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의식주(衣食住)'를 주제로 한 순회 전시를 개최하였다. 2021년 10월 세 박물관은 제3기 합의서(2022-2027)에 서명하고, 향후 6년간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중국 시안시,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와 함께 1년간 다채로운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했다. 기타큐슈시 또한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이 세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 중인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는 한중일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환황해지역 도시 간 경제교류를 위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다롄시는 2016년 인천과 기타큐슈를 포함한 한중일 8개 우호도시들을 초청하여 탐구친선경기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사업 시작, 매년 실무자 회의 및 박물관장회의 순환 개최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관장회의는 2008년 인천-기타큐슈 자매도시결연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하여 기타큐슈시의 제안으로 3차 교류로 발전하였다. 2010년 8월 실무자 회의에서 준비 조정 과정을 거쳐 제1회 관장회의가 같은 해 11월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체결된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 사업에 관한 합의서」가 박물관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3개 박물관은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실무자 회의와 박물관장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있다. 교류사업은 3년 단위로 재협약된다.



2021년 제11회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교류사업 관장회의

사진제공
뤼순박물관

개회 실적

개최년	개최도시	실무자 회의	관장회의
2010	기타큐슈	8월(제1회)	11월(제1회) →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 사업에 관한 합의서」 서명
2011	인천	7월(제2회)	10월(제2회)
2012	다렌	6월(제3회)	
2013	기타큐슈	8월(제4회)	12월(제3회)
2014	인천	7월(제5회)	10월(제4회)
2015	다렌	7월(제6회)	10월(제5회) → 2기째가 되는 「합의서」에 서명, 격년으로 순회전을 개최할 것에 합의
2016	기타큐슈	7월(제7회)	11월(제6회)
2017	인천	6월(제8회)	10월(제7회)
2018	다렌	4월(제9회)	9월(제8회)
2019	기타큐슈	7월(제10회)	10월(제9회)
2020	인천	8월(제11회) *비대면 개최	11월(제10회) *비대면 개최
2021	다렌	7월(제12회) *비대면 개최	10월(제11회) *비대면 개최 → 「제3기 협약서」 서명, 향후 6년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
2022	기타큐슈	상반기 예정(제13회)	11월(제12회) [예정] *회의기간 중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사업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로 3관 심포지엄 개최 예정

2012년: 첫 번째 교류특별전 <다렌, 도시의 풍경> 개최

본 전시는 다렌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근대도시 다렌의 변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개최일	개최기관
2012년 10월 9일 - 11월 4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2년 10월 26일 - 11월 25일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2013년: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동아시아 교류 코너' 설치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은 2013년 3월 박물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세 도시의 우호 박물관 교류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동아시아 교류' 상설코너를 설치하였다. 이 상설 전시코너는 인천광역시와 다렌시의 역사와 문화, 전시활동 관련 사진자료, 문서, 복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동아시아 교류 코너'

사진제공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인천 전시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 포스터

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3~2014년: 두 번째 교류특별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 개최

공업도시 기타큐슈의 역사와 현재를 조감도, 탄광기록화(복제품), 사진자료 등에 담아 소개하였다.

개최일	개최기관
2013년 10월 15일 - 11월 10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4년 1월 21일 - 2월 16일	뤼순 박물관

2013~2014년: 기타큐슈시의 시제(市制)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립박물관·뤼순박물관 명품전> 개최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은 2013년 12월 21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기타큐슈시의 시제 50주년을 기념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뤼순박물관의 명품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다렌시 뤼순박물관에서 출품한 청동기, 회화, 도자기 등 유물들을 통해 기타큐슈 시민들에게 한중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4~2015년: 세 번째 교류특별전 ‘모던 인천’ 순회전 개최

본 전시는 다양한 인쇄물의 삽화를 통해서 근대도시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전달되어 왔는지, 또 그 이미지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최일	개최기관
2014년 12월 4일 - 2015년 1월 4일	뤼순 박물관
2014년 12월 6일 - 2015년 1월 12일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2016~2017년: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첫 번째 순회전 <기모노> 개최

2014년 제4회 박물관장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의식주(衣食住)’를 공동의 테마로 한 순회전시를 격년으로 순환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어 2016년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순회전 개최에 관한 협의서」에 서명했다.

첫 번째 순회전은 동아시아의 복식문화를 주제로 한 일본 전통의상 특별전으로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이 주최하였으며, 기타큐슈를 시작으로 뤼순,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되었다.

개최일	개최기관	전시주제
2016년 11월 12일 - 12월 11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기모노가 말해주는 일본의 마음>
2017년 1월 10일 - 2월 5일	뤼순 박물관	<포의인생 - 일본 근대평민복식전>
2017년 2월 14일 - 3월 19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모노가 말해주는 일본의 정서>



2018~2019년: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두 번째 순회전 <위대한 도구, 젓가락>展 개최

동아시아의 식문화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순회전은 뤼순 박물관의 젓가락 소장품을 바탕으로 각국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 인천 전시 <위대한 도구, 젓가락> 전

사진제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개최일	개최기관	전시주제
2018년 5월 18일 - 9월 20일	뤼순 박물관	
2018년 10월 20일 - 12월 9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젓가락과 생활 - 한중일 젓가락문화전> <식(食) 여행 - 젓가락과 일식의 문화사> 전시 일환으로 개최
2019년 1월 22일 - 2월 24일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위대한 도구, 젓가락> 전



2020~2021년: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세 번째 순회전 <뒷간> 개최

주거문화 속 화장실을 주제로 기획된 세 번째 순회전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뒷간, 화장실이 되다> 전시를 시작으로 뤼순, 기타큐슈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일	개최기관	전시주제
2020년 11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뒷간>
2021년 11월 19일 - 2022년 2월 19일	뤼순박물관	<중국 화장실 문화의 변천>
2021년 11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뒷간, 화장실이 되다> * 2022년 10월 <일본 화장실의 역사> 자체기획전 개최 계획



▶ 인천 전시 <뒷간, 화장실이 되다>전

사진제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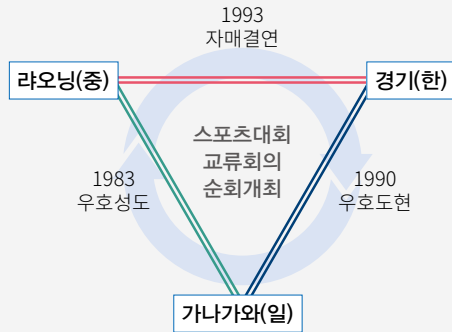
경기도(한) – 랴오닝성(중) – 가나가와현(일)

1996년부터 지속된 3지역 우호교류회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로 확대

경기도,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가나가와현이 1983년 5월 랴오닝성과 우호현성, 1990년 4월 경기도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1993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3자협력 구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5년 랴오닝성의 제안으로 3지역의 상호이해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996년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시작되었다. 3지역은 이 대표자 간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동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류 촉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학술포럼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매년 순환개최되는 3지역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참가자수(약 150여명)와 경기종목(축구, 농구, 탁구 3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다른 3국 교류도시 그룹들과 비교할 때,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의 교류는 매우 역사가 긴 편에 속하며, 교류 사업의 질과 규모 면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다.



1996년~: 3지역 우호교류회의

세 지역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이후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격년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3지역 지방정부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우수시책 발표 및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최 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지	참가인원	주제
제1회	1996년 8월	랴오닝성	147명	3지역 우호협력 방안 논의
제2회	1998년 9월	경기도	150명	환경문제와 지역의 역할
제3회	2000년 9월	가나가와현	145명	과학기술과 문화
제4회	2002년 10월	랴오닝성	250명	3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제5회	2004년 10월	경기도	230명	3지역 간 전면적 협력강화 구축
제6회	2006년 11월	가나가와현	150명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인식 강화
제7회	2008년 10월	랴오닝성	100명	3지역 환경보호분야 협력 강화
제8회	2010년 10월	경기도	100명	3지역 지역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
제9회	2013년 3월	가나가와현	100명	3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

제10회	2014년 8월	랴오닝성	50명	인구고령화 극복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 구축
제11회	2017년 11월	경기도	70명	스타트업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3지역 협력방안
제12회	2019년 5월	가나가와현	50명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한 3지역 간 협력방안
제13회	2021년 10월	랴오닝성 *비대면 개최	30명	도시재생

2021년 제13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

출처
랴오닝성



2004년~: 3도성현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세 지역은 2002년 개최된 제4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하계방학기간 중 스포츠 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국가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남자 축구 1개 종목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여자 농구, 2014년부터는 남녀 탁구도 추가하여 참가자수와 경기 종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15회 교류대회

사진제공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 실행위원회에서 발간한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일본 고교생 참가자들의 소감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디랭귀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 ▲ 중국과 한국 선수들은 매우 다정했으며 그들의 나라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 우리가 모두 같은 고교생이며, 스포츠에 국경이나 언어의 장벽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개회 실적

회차	일자	개최지	참가자	프로그램
1회	2004년 8월 23~27일	경기도	경기도 20명, 라오닝성 21명, 가나가와현 24명	축구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2회	2005년 8월 25~29일	라오닝성	경기도 25명, 라오닝성 23명, 가나가와현 24명	축구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3회	2006년 8월 23~27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24명, 가나가와현 27명	축구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4회	2007년 8월 24~28일	경기도	경기도 35명, 라오닝성 42명, 가나가와현 42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5회	2008년 8월 25~29일	라오닝성	경기도 35명, 라오닝성 45명, 가나가와현 42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6회	2009년 8월 24~28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38명, 가나가와현 39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7회	2010년 8월 23~27일	경기도	경기도 39명, 라오닝성 33명, 가나가와현 42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8회	2011년 8월 22~26일	라오닝성	경기도 39명, 라오닝성 37명, 가나가와현 40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문화체험 등
9회	2012년 8월 27~31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39명, 라오닝성 19명(여자 농구), 가나가와현 37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10회	2013년 8월 26~30일	경기도	경기도 49명, 라오닝성 15명(여자 농구), 가나가와현 41명	축구(남)·농구(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11회	2014년 8월 26~30일	라오닝성	경기도 45명(남자 축구·여자 농구), 라오닝성 48명, 가나가와현 47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녀)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출처
경기도, 가나가와현

12회	2015년 8월 24~28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54명, 라오닝성 51명, 가나가와현 46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녀)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13회	2016년 8월 22~26일	경기도	경기도 50명, 라오닝성 47명, 가나가와현 50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녀) 친선경기, 문화체험 등
14회	2018년 8월 20~24일	라오닝성	경기도 51명, 라오닝성 53명, 가나가와현 49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녀) 친선경기, 문화체험 등
15회	2019년 8월 19~22일	가나가와현	라오닝성 10명(남녀 탁구), 가나가와현 45명	탁구(남녀) 친선경기,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
16회	2022년 [예정]	경기도	미정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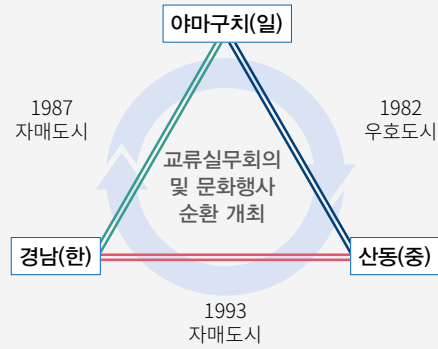
경상남도(한) – 산동성(중) – 야마구치현(일)

1997년 시작된 한중일 3도성현 교류, 2006년부터 제도화

경상남도, 중국 산동성(山東省),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은 본국과 이웃나라를 잇는 ‘바다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3자 교류를 시작하기 전에는 산동성과 야마구치현이 1982년 8월 우호협정을, 경상남도와 야마구치현이 1987년 6월 자매결연을, 경상남도와 산동성이 1993년 9월 우호·자매도시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1997년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1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10주년을 계기로 쌍방간 교류에서 한 단계 진보된 협력강화를 위하여 삼각교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구체적인 협력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교류실무회의 및 교류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후 문화·청소년교류, 노인복지 분야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간 교류도 활발하다.



2006년~: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순환 개최

경상남도, 산동성, 야마구치현 간 협력사업은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1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10주년을 계기로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과 정책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문화·청소년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왔다. 2006년부터는 교류실무회의를 순환 개최함으로써 3자 교류행사를 제도화해왔다.

가장 최근 개최된 제10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는 2021년 12월 야마구치현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최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을 주제로 3도성현의 국제교류부서와 노인복지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류 실적

개최일	개최도시	행사
1997년 11월	야마구치현	• 동아시아 문화의 모임 • 제1회 국제문화 심포지엄
1998년 2월	야마구치현	• 국제환경 심포지엄
1999년 11월	산동성	• 제2회 국제문화 심포지엄
2001년 10월	경상남도	• 제3회 국제문화 심포지엄
2006년 11월	야마구치현	• 제1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실무회의 정기개최에 합의 • 3도성현 관광교류포럼
2007년 9월	산동성	• 제2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2007년 10월	야마구치현	•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2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사업 → 3도성현 교류포럼(국제교류·국제관광·자연환경) → 3도성현 고교생 스포츠교류
2011년 3월	경상남도 산동성	• 제3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3자 언론교류 및 협력사업
2012년 2월	야마구치현	• 제4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2012년 7월	야마구치현	• 산동성-야마구치현 30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 → 민속문화 예술교류 → 보도교류협력 검토회 → 체육우호교류(탁구) → 청소년 정책 전문가 심포지엄
2014년 8월	산동성	• 제5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3도성현 청소년 친선탁구대회
2015년 9월	경상남도	• 제6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개최주기 격년제로 변경 [메르스(MERS)로 인한 농구경기 취소]
2017년 8월	야마구치현	• 제7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개최주기 격년에서 연례 개최로 변경 •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3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30주년 사업 → 3도성현 청소년 문화공연
2018년 8월	산동성	• 제8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3도성현 서화예술교류전
2018년 10월	야마구치현	• 야마구치 꽃박람회
2019년 11월	경상남도	• 제9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마산국화축제 전통무예공연(한국 태권도, 중국 우슈, 일본 나기나타)
2020년 11월	야마구치현 *비대면 개최	• 제10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2021년 교류행사(노인복지 교류) 추진사항 협의 • 기타 신규사업 발굴 가능 여부(2022년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도시 40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 교류협력 등)
2021년 12월	야마구치현 *비대면 개최	• 교류행사: 노인복지정책 정보교환 및 2022년도 개최 관련 논의
2022년 [미정]	산동성 *비대면 개최	• 제11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 한방을 통한 국제교류 관련 정보교환회 및 청소년 전통악기 연주회 개최 예정



▶ 2020년 제10회 3도성현 교류실무회의

사진제공
아마구치현

1997년~: 취푸사범대학, 아마구치현립대학, 경남대학교 간 교류 사업 지속

아마구치현립대학은 경상남도 소속 경남대학교, 산동성 소속 취푸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2000년부터 이들 대학 학생들이 매년 여름마다 현립대학을 방문하도록 하는 글로벌 학생 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되었던 '3개 대학 트라이앵글 교류사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글로벌 학생 교류사업'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까지 약 3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캠퍼스 상호교류 증진과 소속 학생,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 학생들은 일본어 수업, 홈스테이, 일본문화체험, 전공교류, 학생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2년간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될 예정이다.

아마구치현립대학 학생들 또한 취푸사범대학과 경남대학교의 단기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푸사범대학의 프로그램은 아마구치현립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남대학교는 중국과 일본 이외의 타 제후대학 학생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다.



▶ 일본 아마구치현립대학 각 학부·학과와의 교류모습

사진제공
아마구치현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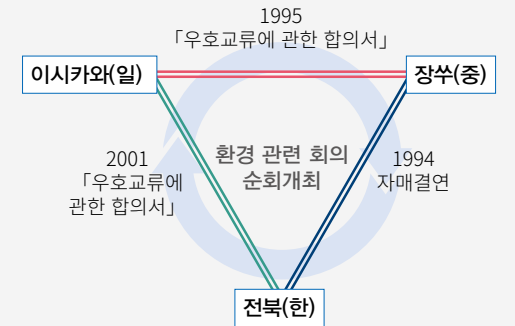
전라북도(한) – 장쑤성(중) – 이시카와현(일)

환경 분야 3자 협력사업 지속

전라북도, 중국 장쑤성(江蘇省),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은 2003년부터 환경 분야 실무자간 교류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 간 교류는 1994년 10월 전라북도와 장쑤성이 자매결연을 맺고, 장쑤성과 이시카와현이 1995년 11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 2001년 9월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이 「우호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면부터 시작되었다.

3개 지역 간 정례사업으로는 '환경 협력 트라이앵글 사업'이 있다. 2003년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 양자 간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장쑤성을 포함한 3자 사업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3년~: 한중일 환경협력포럼 순환 개최

3개 지역은 각국 공동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에 관한 상호협력과 인식공유를 위해 환경보전 분야 담당자 간 검토회와 문화교류행사를 순환개최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두 차례 연기된 이 포럼은 각국의 코로나 유행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

▶ 2019년 한중일 환경협력포럼

사진제공
전라북도청



개최 실적

회차	개최년도	개최지	주제
제1회	2003년*	이시카와현	환경교육 추진
제2회	2004년*	이시카와현	기업 및 행정기관의 환경배려와 환경교육
제3회	2005년*	이시카와현	순환형 사회의 추진에 대해
제4회	2006년	장쑤성	수질 보전 대책
제5회	2007년	전라북도	지구 온난화 대책
제6회	2008년	이시카와현	지구 온난화 대책
제7회	2009년	장쑤성	생물다양성 보전
제8회	2013년*	이시카와현	지구 온난화 대책
제9회	2014년*	전라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제10회	2015년*	이시카와현	자원순환정책
제11회	2016년	장쑤성	고체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제12회	2017년	전라북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13회	2018년	이시카와현	거주지 인근 산촌의 이용 및 보전
제14회	2019년	장쑤성	토양오염의 관리 및 복원·이용
제15회	2022년 [예정]	전라북도	미정

*한·일 2개 지역만 참석. 상기 연도는 일본의 회계연도(4월 1일 - 3월 31일)를 따름

출처
이시카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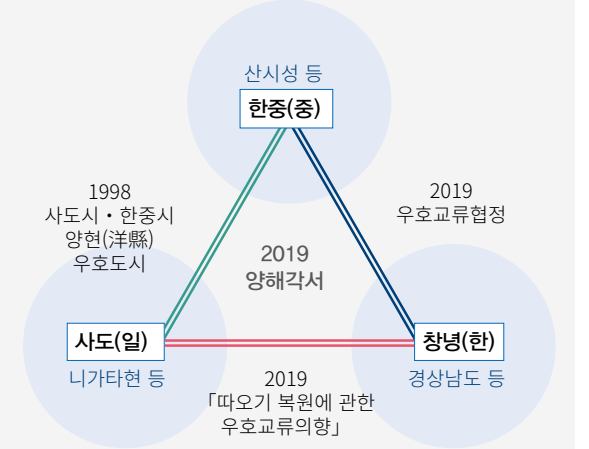
창녕군(한) - 한중시(중) - 사도시(일)

따오기를 통한 3시·군 협력의 다변화

경상남도 창녕군, 중국 산시성 한중시(漢中市),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佐渡市)는 한중일의 따오기 서식지로서 도·성·현급 교류를 포함하여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따오기는 원래 한중일 등지에서 널리 서식하고 있었지만, 남획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 한국에서는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목격된 것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2003년 일본산 따오기가 멸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따오기가 1981년 발견되어 증식에 성공했다. 국가 간 우호의 상징으로서 1999년 중국이 일본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였고, 2008년에는 한국에도 기증하였다. 한·일 양국은 이후 각각 따오기 증식에 성공했다.

2012년 이후 이들 3개 지역은 따오기 야생복귀와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3국 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19년 7월 개최된 따오기 국제포럼에서는 따오기 보호, 야생복귀, 서식지 보호 및 복구 분야에서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생태관광, 관련산업 진흥 등 3자 간 교류 확대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1999년·2008년: 중국에서 한·일에 따오기 기증

일본은 1985년부터 중국에서 따오기를 대여하여 일본산 따오기와의 교배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8년 11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일본 국민방문 시 천황에게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할 계획을 밝혔고, 1999년 1월 사도시에 기증되어 증식에 성공했다. 한국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2019년 7월 양해각서 체결식
(왼쪽부터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국 창녕군수, 중국 한중시 부시장, 일본 사도시장)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11월 한국 창녕군에 기증되어 증식에 성공했다.

2012년~: 따오기 복원 · 증식을 위한 한중일 정보 공유

따오기 복원 · 증식 사업에 종사하는 한중일 관계자들은 3국 간 국제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따오기 보호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회의는 2014년 11월 중국, 2016년 12월 일본, 2019년 5월 한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8년~: 중국에서 제1회 따오기국제포럼 개최, 2019년 교류 본격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8년 5월 한중시 양현에서 따오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중일 관계자 등이 모여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따오기 국제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3국 간 협력이 따오기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따오기를 매개로 한 산업, 관광, 문화 등 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19년 7월 11일 서울에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주최, 중국 따오기국제포럼사무국 공동주최, 한국 외교부 후원으로 '따오기 국제포럼 2019 in 서울'이 개최되었다. 2019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따오기 야생방사에 성공한 해이자 1999년 최초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한국 서울에서 해당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 당일 한정우 창녕군수, 장 전권 한중시 부시장, 미우라 모토히로 사도시장, 그리고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이종현 전 사무총장은 4자 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따오기 관련 행사 및 따오기를 매개로 한 문화, 생태관광, 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포럼의 각 세션에서는 따오기를 통한 지방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포럼기간 중 한중일 따오기 서식지에서 온 3국 어린이들의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포럼 오후 세션에 앞서 한중일 어린이들의 합동공연이 열렸다.



▶ 2019 서울 따오기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따오기 동요를 합창 중인 한중일 어린이 공연단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 '미래를 향하여 - 따오기 발견 40주년 한중일 온라인 기념행사' 현장모습

출처
중국 산시성

▶ '미래를 향하여 - 따오기 발견 40주년 한중일 온라인 기념행사'에서 따오기 동요를 부르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

출처
중국 산시성

개최이력			
회차	개최일	개최지	주제
제1회	2018년 5월 22 - 24일	중국 산시성 한중시	따오기로 맺은 인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제2회	2019년 7월 11일	한국 서울특별시	새로운 여정, 새로운 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한중일 따오기 협력
제3회	2022년[예정]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미정

2019년 5월: 3국 귀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최초 따오기 야생 방사에 성공

2019년 5월 22일, 한국의 유일한 따오기 서식지인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오랜 염원이었던 야생방사가 실현되었다. 방사식에는 중국과 일본의 귀빈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창녕군수와 사도시 부시장은 「따오기 복원에 관한 우호교류의향」을 체결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창녕군에서 '따오기 야생복귀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21년 5월: 따오기 발견 기념 40주년 한중일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중국 산시성, 한국 경남도청, 일본 니가타현은 2021년 5월 21일 '미래를 향하여 - 따오기 발견 40주년 한중일 온라인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했다. 한중시, 창녕군, 사도시의 실무 관계자들이 온 · 오프라인으로 따오기 보호 경험과 미래 비전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한중일 학생들의 따오기 동요 공연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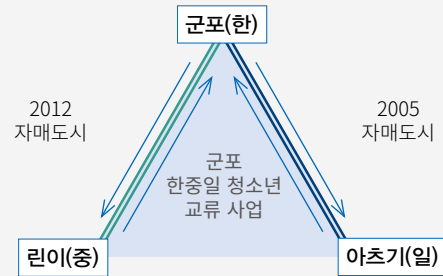


군포시(한) – 린이시(중) – 아츠기시(일)

군포시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한중일 청소년교류 사업 운영

경기도 군포시는 2010년부터 중국 산둥성 린이시(臨沂市),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厚木市)와 청소년 교류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교류를 시작할 당시 군포시는 아츠기시와 자매결연(2005년 체결), 린이시와는 2008년부터 우호교류 관계(2012년 자매결연)에 있었다.

군포시는 매년 린이시와 아츠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파견·초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포시에서 상대 도시로 파견할 경우에는 양자 간 교류로 진행되지만, 군포시로 초청할 경우 중·일 두 도시에서 온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통해서 한중일 간 3자 청소년교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개 도시 간 자매·우호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3자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개최 실적

회차	개최일시	참여 국가
제1회	2010년 7월 23 – 29일	한·중·일 참여
제2회	2011년 7월 21 – 29일	한·중·일 참여
제3회	2012년 7월 20 – 30일	한·중·일·러시아(우스리스크시) 참여
제4회	2013년 7월 22 – 28일	한·중·일·러시아(우스리스크시) 참여
제5회	2016년 7월 25 – 30일	한·중·일 참여
제6회	2017년 7월 25 – 31일	한·중·일 참여
제7회	2018년 7월 23 – 29일	한·중·일 참여
제8회	2019년 7월 20 – 25일	한·일만 참여
제9회	2022년[예정]	미정



2019 군포국제청소년페스티벌 K-POP 교실
사진제공 군포시

2010년~: 군포시 주최로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군포시는 2010년 7월 군포시·린이시·아츠기시 3개 도시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1회 군포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첫 회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군포 학생 자택에서 1:1 결연을 통한 중·일 학생 홈스테이 생활(3박), ▲전체합숙 및 단합의 장(1박), ▲군포시장, 시의장 등과의 만남, ▲한국어 교실, K-POP, 전통예절, 도예 등 문화체험 및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는 또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중고생을 개별모집하여 페스티벌 종료 후 린이시(8월) 또는 아츠기시(다음해 1월)에 단기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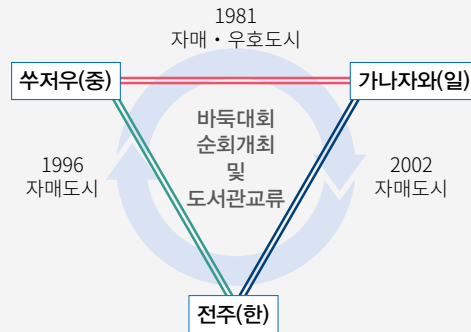
전주시(한) – 쑤저우시(중) – 가나자와시(일)

바둑 · 도서관을 통한 트라이앵글 교류

전라북도 전주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蘇州市),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지정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주시는 '미식', 쑤저우시와 가나자와시는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에서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들 3개 도시 간 교류는 쑤저우시와 가나자와시가 1981년 우호 · 자매도시 협정을, 1996년 전주시와 쑤저우시가 자매결연을, 2002년 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에 기인한다. 2010년부터 바둑교류를, 2015년 이후에는 도서관 교류를 시작했다. 전주시 완산도서관, 쑤저우도서관,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도시 간 우호 · 자매도시 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양자 간 교류협약서를 각각 체결함으로써 한중일 도서관 3각 교류의 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가나자와시는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부산광역시, 중국 하얼빈시와 함께 1년 동안 다채로운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 바둑대회

사진제공 전주시

2010년~: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 바둑대회 격년 개최

바둑교류는 2009년 가나자와시에서 제안하고, 2010년 쑤저우시에서 제1회를 개최한 이후 순환제로 열리고 있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매년 운영되다가, 제4회차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었다. 가나자와시에서는 민간단체(가나자와국제바둑협회)가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며, 전주시와 쑤저우시는 시정부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6회 대회에는 전주시 20명, 쑤저우시 10명, 가나자와시 10명 총 40명의 아마추어 바둑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개회 실적

회차	년도	개최지	회차	년도	개최지
제1회	2010년	쑤저우	제5회	2016년	가나자와
제2회	2011년	가나자와	제6회	2018년	전주
제3회	2012년	전주	제7회	2020년[미정]	쑤저우[미정]
제4회	2014년	쑤저우			

2013년~: 3개시 도서관 교류협약서(MOU) 체결, 도서관 교류 개시

중국 쑤저우 도서관과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양 도시간 우호자매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교류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4년 9월에는 전주시 완산도서관과 쑤저우 도서관이, 2015년 10월에는 완산도서관과 우미미라이 도서관이 각각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3개국 도서관 트라이앵글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완산도서관과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2017년부터 2년 주기로 상호도서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3국 도서관 간 주된 교류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2016년 10월 6~25일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완산도서관, 쑤저우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시와 쑤저우시를 소개하는 문화 전시사업을 실시했다. 전시기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한중일 이야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 독서장려 방법' 기획전을 실시하였다.

(2) 2017년 6~8월

완산도서관과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양자 의향서 체결 이후 첫 상호도서 교환을 진행했다. 6월에는 완산도서관에서 우미미라이 도서관으로 전주시 소개 서적, 당시 베스트셀러, 한국문화 관련 도서 43권을 기증하였고, 이어 8월에는 우미미라이 도서관에서 가나자와시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서적 50여 권을 기증하였다.

(3) 2018년 3월 ~ 2019년 2월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쑤저우 도서관과도 100여 권의 도서를 교환했다. 우미미라이도서관에서는 2018년 3월 일본의 문화, 경제, 향토, 아동 관련 서적을 기증하였으며, 쑤저우 도서관에서는 2019년 2월 우미미라이 도서관에 중국의 역사, 문화 관련서적을 기증하였다.

(4) 2018년 10월 11~30일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완산도서관, 쑤저우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나자와 · 자매도시 도서관 교류의 발자취' 기획전을 실시했다. 전주시와 쑤저우시의 개요, 문화 · 전통공예, 도서관,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사업' 등 관련 내용을 패널, 공예품, 도서 등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소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동화책과 음악으로 잇는 세 도시들의 이야기-가나자와 · 쑤저우 · 전주'를 주제로 한 동화책 만들기 워크숍과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5) 2019년 4월 ~ 2020년 6월

우미미라이 도서관에서 가나자와시의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동화와 노래로 잇는 세 도시 이야기' 행사에 전시되었던 6권의 도서(『한중일 옛날 동화집 1~3』,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 보고서 2015~2017』)를 완산도서관과 쑤저우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듬해인 2020년 6월 완산도서관에서 한국 · 전주시 소개 서적, 베스트셀러, 대중문화 관련 도서 50여 권을 우미미라이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6) 2019년 12월 10~11일

쑤저우 도서관에서 제2도서관 개관식을 계기로 전주시 도서관, 쑤저우시 도서관, 우미미라이 도서관 관계자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약 20명의 한중일 도서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각국 자관도서관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7) 2021년 2~4월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2021년 2월 쑤저우 도서관에 향토, 일본문학, 아동 관련 서적을 50권 송부하였고, 같은해 4월 쑤저우 도서관에서도 우미미라이 도서관에 출판물을 기증하였다.

(8) 2021년 7월 22~27일

'우호 · 자매도시40주년 기념' 쑤저우 · 가나자와 교류전이 우미미라이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교류전은 쑤저우시의 8종 공예품 37점을 중심으로 쑤저우시 · 가나자와시 교류사진 전시전, 쑤저우시 풍경 사진전 등을 포함하였다. 전시기간인 24~25일 양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가나자와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종이공예 '전지(剪紙)' 강좌도 개최되었다.



◀ '우호 · 자매도시 40주년 기념' 쑤저우 · 가나자와 교류전 포스터

출처 가나자와시

▶ '우호 · 자매도시 40주년 기념' 쑤저우 · 가나자와 교류전에 전시된 쑤저우 공예품

출처 쑤저우시



광주광역시(한) – 취안저우시(중) – 요코하마시(일)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광역시, 중국의 푸젠성 취안저우시(泉州), 일본의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横浜市)는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 동안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 세 도시의 시장들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에 서명하고, 이후에도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교류협력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3개 도시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2015년 이후에도 활발하게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 1년에 1회 다른 2개 도시에서 대표단을 초청하여 문화·청소년 교류 사업을 주로 실시한다. 주로 큰 규모의 문화행사에 파트너 도시의 공연단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1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교류 지속에 합의

2014년 시작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초대 문화도시로서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는 함께 1년간 활발하게 문화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3개 도시는 같은 해 11월 개최된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요코하마시 폐막식'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3개 도시가 초대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함께 구축해 온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교류 및 우호 촉진
2. 문화·예술단체, 기업, 시민 등 민간교류 활성화 노력
3. 동아시아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4. 3개 도시의 대표와 관계 부서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협력업무,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

2015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8월 '요코하마 댄스 퍼레이드'에 광주, 취안저우 무용단 참가
광주	9월 '한중일 서예교류전' 개최, 취안저우, 요코하마, 청주, 청다오, 니가타 6개 동아시아문화도시 작가 23명을 초청, 총 61점 작품을 전시
광주	10월 '추억의 7080총장축제'에 취안저우(손인형극), 요코하마 공연팀(공연 및 거리 퍼레이드) 참가
취안저우	11월 '제14회 아시아 예술제'에 광주,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11월 광주광역시와 한국 국제여성미술교류협회의 제안으로 일본 요코하마뱅크아트(BankART Studio NYK, 요코하마시의 '창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됨)를 소개하는 국제여성미술제를 개최
광주	11~12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요코하마뱅크아트 1929의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
광주	12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안저우시와 '광주-취안저우 언론매체 교류행사' 실시, 양 도시 간 상호 기자파견 및 문화관련 내용 취재시 협조사항 등을 논의

2016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6월 '광주 ACC프린지페스티벌'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9월 '2016 요코하마 음악제'에 광주, 취안저우 예술단 참가, 학교 방문
취안저우	10월 '제2회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에 광주,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 광주	1~3월 '광주×고가네초(黄金町) AIR교환 프로그램2016' 중 광주와 요코하마 간 예술가 상호 파견 프로그램 실시
광주	7월 '동아시아문화도시 건축포럼'에 요코하마시 참가

2017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6월 '광주 ACC프린지페스티벌'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8월 '요코하마 청소년 교류제' 중 한중일 고등학생 및 교사 36명이 요코하마에 모여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17'을 견학하고 일본문화 체험 등 교류활동 진행
취안저우	12월 '제3회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에 광주,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11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포럼'에 취안저우, 요코하마를 비롯한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

2016 요코하마 음악제에서 공연 중인 광주 예술단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행사에 참여한 취안저우 공연단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취안저우 행사에 참가한 요코하마 공연단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2018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7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개최된 '대국민 한마당 축제'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9월 '댄스, 댄스, 댄스 @요코하마 2018' 등 행사에 광주, 취안저우 예술단 참가 및 현지 학교방문
취안저우	11월 '동아시아문화도시 · 한중일 도시 미술작품 초청전' 개최. 전시기간 중 광주와 요코하마에서 파견된 아티스트가 현지에서 작품 제작활동 진행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 광주	1~3월 '광주×고가네초 AIR교환 프로그램 2017(일본의 예산연도를 따름)' 중 광주와 요코하마 간 예술가 상호 파견 프로그램 실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같은 프로그램 2018 진행
취안저우	2~3월 '취안저우×고가네초 예술도시 조성지원 프로그램' 중 취안저우 해외교통사박물관에서 요코하마 노랑 · 히노데초 지구 '아트에 의한 지역개발' 관련 자료전시 및 토크쇼 등 개최
광주	9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언론포럼'에 요코하마, 취안저우를 비롯한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언론인들이 참가

2019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7월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축하공연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제주(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9월 '요코하마 음악제 2019'에 광주, 제주, 취안저우 예술단 참가
취안저우	11월 '제4회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 일대일로 예술공연워크 행사에 광주, 청주, 제주, 요코하마 등 예술단 참가



▶ 취안저우 행사에 참가한 광주 공연단

▶ 사진제공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ACCF)



▶ 광주 행사에 참가한 요코하마 공연단

▶ 사진제공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ACCF)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1월 '취안저우x고가네초 예술도시 조성지원 프로그램 2018' 중 취안저우에서 아티스트 파견 및 자료전시
요코하마·광주	7~8월 '광주x고가네초 AIR교환 프로그램 2019'에서 광주와 요코하마 간 예술가 상호 파견 프로그램 실시
광주	10월 '2019 아시아 문화포럼'에서 <공간과 커뮤니티, 골목의 재발견>을 주제로 동아시아문화도시 특별세션 개최

2020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취안저우·요코하마(온라인)	11~12월 3도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 홍보영상 「영상 예술로 안부를 묻다」를 공동제작하여 YouTube에 공개

▶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제작 홍보영상 「영상 예술로 안부를 묻다」도입부 화면

▶ 사진제공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ACCF)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광주	1~3월 기존 AIR교환 프로그램 대신 비대면 행사인 '광주x고가네초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개최, 예술가들이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광주와 고가네초에서 각각 성과전시회를 개최

2021년 주요 교류 활동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7~11월 '댄스, 댄스, 댄스 @요코하마 2021'에 광주와 취안저우 예술단 화상출연, 한일팀과 중일팀이 온라인 합동연습을 거쳐 온·오프라인 창작댄스 공연 진행
광주	11월 '한중일 문화도시 아마추어 성악 콩쿠르'에 취안저우와 요코하마 추천 성악가 영상 출전
광주	8~11월 취안저우, 요코하마와의 협력 하에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관광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국 TV 방영 및 YouTube에 공유



기타

요코하마 행사에 영상으로 참여한 한일팀의 합동공연 모습

출처
요코하마시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10월 '2021 아시아문화포럼' 중 <탈경계 시대, 도시와 청년문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취안저우, 요코하마 연사 영상발표
취안저우	11월~2022년 1월 개최된 '국민대축제'에 한국 광주, 청주, 대구, 중국 상하이, 닝보, 하이난, 일본 아오모리, 대마도, 도쿄 등 화상출연 공연 및 사진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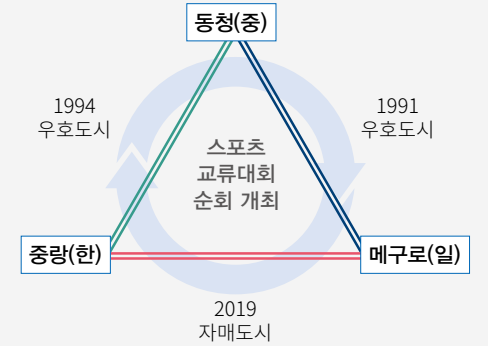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랑구(한) - 베이징시 동청구(중) - 도쿄도 메구로구(일)

전례 없는 구(區) 간 트라이앵글 교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국 베이징시 동청구(東城區),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目黒區) 3개 구는 2017년부터 스포츠교류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구(區) 간 트라이앵글 교류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의 교류는 중랑구와 메구로구가 90년대 각각 베이징시 동청구와 우호도시관계를 맺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2010년 중랑구와 메구로구가 교류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3개 구가 운영 중인 중학생 스포츠 교류는 2015년 처음 제안되었으며 바로 이듬해 합의를 거쳐 201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 후, 중랑구와 메구로구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7월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3개 구는 이후 스포츠 분야 외에도 문화교류 분야로 3자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7월: 3개구 협의회, 중학생 스포츠 교류 실시에 합의

2016년 7월 동청구청장의 초청으로 중랑구와 메구로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3구 간 교류사업과 지속적인 우호교류 관계 증진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 결과, ▲ 2017년부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교류 실시, ▲ 첫 개최지는 동청구, ▲ 참여대상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등 교류사업 내용을 큰 테두리 내에서 합의하고, 상세내용에 대해서 이후 실무자들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9년 농구친선경기

사진제공
중랑구청



2017년 7월: 제1회 '3개국 청소년 농구교류전' 동청구에서 개최

2017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1회 3개국 청소년 농구교류전이 개최되었다. 이 사업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3개국 간의 우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최지	상세 정보
7월 25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구 · 메구로구 대표단, 베이징 도착 • 환영 만찬
26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구 농구대회 개최식 • 제1시합(중량구 대 동청구) • 제2시합(동청구 대 메구로구)
27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시합(중량구 대 메구로구) • 3구 농구대회 폐회식 • 중국 전통문화체험(동근 부채, 가면 채색, 베이징시 제5중학교 방문) • 동청구 견학(난뤄구상) • 송별 만찬(동청구인민대표대회 주임 주재)
28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시내 참관(고궁 등)
29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

메구로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성과로 메구로구 구립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3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넘어 농구의 공통된 룰에 따라 스포츠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개별 학생들의 소감을 살펴보면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한국과 중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기 중에 일본 학생이 중국 학생에게 밀려서 넘어졌는데 파울을 한 중국 학생이 일본 학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학생의 소감이 있었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경기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찬에서는 간단한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었다”, “영어와 상대방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8년 7월: 제2회 '3개국 청소년 농구교류전' 메구로구에서 개최

제2회 3개국 청소년 농구교류전이 2018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메구로구에서 개최되었다. 농구시합은 전년도와 같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간 경기로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 교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메구로구팀), “언어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도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일본 선수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동청구팀), “환영회에서 (중국과 일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하고 싶다”(중량구팀) 등 소감을 전했다.

[칼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학생들의 소통]

한중일 중학생들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국제교류 경험이 적어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 쉽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최측은 게임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에 성공했다.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은 모든 시합이 종료된 후에 실시되었다.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3국 학생들로 구성된 6개 혼합팀을 만들어 프리스로 게임을 진행했다. 공을 던지는 팀과 쏘는 팀으로 나누어 1분 동안 골인된 횟수를 견주었다. 게임을 통해서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바디랭귀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 거리를 좁혀 이후 팀교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리스로의 결과는 같은 날 저녁식사 시간에 발표했는데, 일등을 한 팀들이 동점이 되는 발생하여 3국 공통의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가르면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식사 자리배치를 할 때에도 같은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앉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통역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간단한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점차 허물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에 미리 통역 어플을 다운받아 의사소통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2019년 7월: 제3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 중랑구에서 개최, 중랑구·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제3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은 중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중랑구에서 실시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농구 시합뿐만 아니라 중랑구에 위치한 용마폭포공원을 방문하여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를 둘러보고, 클라이밍 체험 등 색다른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에서 짙라인 체험, 웅기테마공원에서 한지공예, 목공예 체험 등 문화체험을 함께 하면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25일에는 3개구 대표단이 모여 배드민턴을 차기 교류종목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26일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아오키 에이치 메구로구청장이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랑구, 동청구, 메구로구 3개 구 자매결연 트라이앵글이 형성되었다.



2019년 한중일 3개구 대표단 회의

사진제공
중랑구청

청주시(한) – 칭다오시(중) – 니가타시(일)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충청북도 청주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靑島市),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新潟市)는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도 폐막에 즈음하여 세 도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우호·교류관계를 촉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세 도시는 청소년 교류사업(여름단기 교류프로그램)과 문화교류 사업(대표축제 공연단 파견)을 중심으로 활발히 교류해왔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청소년 교류사업은 비대면으로, 문화교류 사업은 상호 영상교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5 청주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5. 东亚文化之都·中国青岛
2015年東アジア文化の都·中国青島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중국청도
2015 Culture City of East Asia · Qingdao, China



東アジア文化都市
2015新潟市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5.NIIGATA

2015년 12월: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선언문」 채택, 교류 지속에 합의

청주시, 칭다오시, 니가타시는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칭다오 폐막식'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공동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3개 도시는 상호협력하여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우호를 촉진함과 동시에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동아시아 문화발전을 위해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3.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계 협력하며, 문화의 힘으로 공동과제 해결에 공헌한다.

2016년~: 하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운영

청주시, 청다오시, 니가타시는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던 2015년 이후에도 상호파견을 통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속해왔다. 매년 규모, 시기, 참여 청소년 연령 등을 사전협의하여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각 도시에서 3~5일간의 단기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6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6~28일	3개 도시 청소년 각 15명
청주시	7월 30일~8월 2일	3개 도시 청소년 각 15명
청다오시	8월 10~13일	3개 도시 청소년 각 15명

2017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5~28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청주시	7월 30일~8월 1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2018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8~31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청주시	8월 1~4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2019년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7월 27~30일	청다오시·니가타시 청소년 참가 농업,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니가타시 문화체험
청주시	8월 1~5일	3개 도시 청소년 참가 전통악기체험, 문화시설 견학 등을 통한 교류
청다오시	8월 11~15일	청주시·청다오시 청소년 참가 (태풍의 영향으로 니가타시 불참) 전통공예체험, 문화시설 견학 등을 통한 교류

2019 청주시 주최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청주시



2020년

주최	일시	참가자	내용
청주시·니가타시	10월 17일	•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 5명	• 각 교류도시의 도시문화, 관광지, 음식 등에 대한 참가자 발표, 학교생활을 중심 주제로 한 프리토크, 소감발표, 다과시식 및 기념품 교류 등
청주시·청다오시	10월 24일	• 청주시·청다오시 청소년 각 5명	
청다오시·니가타시	10월 24일	• 청다오시·니가타시 청소년 각 5명	



2020 청주시 주최
청소년 비대면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청주시



2020 청주시 주최
청소년 비대면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출처
니가타시



2020 청주시 주최
청소년 비대면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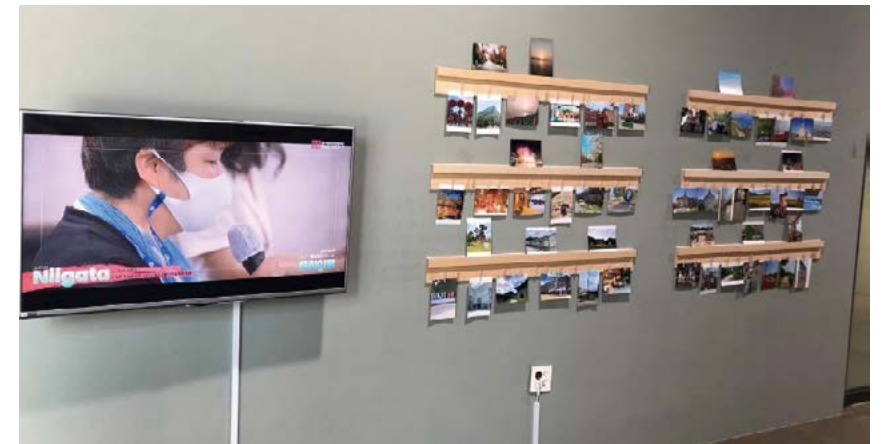
출처
칭다오시

2021년

주최	일시	내용
청주시· 니가타시	7월 27일(1회차), 8월 11일(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온라인 문화교류 '온택트 문화이음' • 청주시 10명, 니가타시 20명(각 회차당 10명) 참가 • 참가자 자기소개, 각 도시·음식에 대한 소개 발표 및 질문, 게임, 드라마, 간식, 교육, 학교생활, 올림픽 등 다양한 주제로 프리토크, 감상발표 등
청주시· 칭다오시	7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온라인 문화교류 '온택트 문화이음' • 청주시 10명, 칭다오시 10명 참가 • 참가자 자기소개, 도시 소개, 드라마, 연예인, 유행어, 학교생활, 외국어 공부,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프리토크, 감상발표
칭다오시· 니가타시	7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가타시와 칭다오시 각 7명 참가 • 참가자 자기소개, 도시 문화·관광 명소·음식 등에 대한 소개, 프리토크, 감상발표 등
청주시	10월 12~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온라인 문화교류 '도시사진 원정대 전시회' 개최 • '온택트 문화이음' 참가자들이 출품한 도시소개 사진 54점을 청주시에 오프라인으로 전시

2021 청소년 온라인 문화교류
'도시 사진 원정대' 전시회

사진제공
청주시



2021 청주시 주최
'온택트 문화이음'에 참여하여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중국 학생의 모습

사진제공
칭다오시



2022년[예정]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1월~	청소년 온라인 문화교류전 관련 사진을 니가타시 다수의 전시장에서 패넬전 형식으로 전시
청주시·칭다오시	미정	청소년 온라인 문화교류

2016년~: 공연단 상호파견을 통한 연례 문화교류

세 도시는 또한 각 도시의 대표축제에 공연단을 상호파견함으로써 행사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시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중국의 취안저우시 등 역대 동아시아 문화도시와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8월 4~8일	'니가타축제'에 청주시 및 칭다오시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청주시	11월 9~12일	'2016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전통타악연주단 초청

2017년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8월 4~7일	'니가타축제'에 청주시 및 제주도(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청주시	11월 9~12일	11월 10~19일 개최된 '2017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전통타악연주단 초청

2018년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8월 10~13일	'니가타축제'에 청주시 전통예술공연단, 제주도 케이팝댄스그룹을 초청
청주시	9월 7~10일	9월 9~16일 개최된 '2018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전통타악연주단 초청

2019년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8월 10~11일	'니가타축제'에 칭다오시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청주시	9월 20~22일	'2019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칭다오시를 비롯해 광주시·취안저우시(2014 한·중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도(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민속공연단 초청
칭다오시	10월 25~28일	26일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칭다오) 및 '즐거운 칭다오' 광장 워크 축제' 폐막식에 청주시 및 니가타시 공연단 초청. 27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실무자회의 개최

▶ 청주시 주최 '2019 젓가락 페스티벌'에 참가한 니가타시 민속공연단



사진제공 청주시

▶ 칭다오시 주최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실무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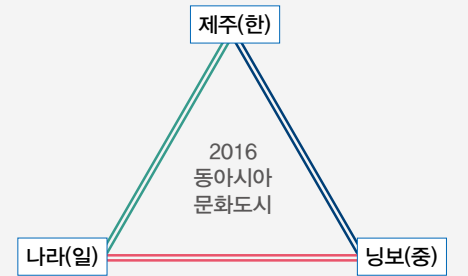


사진제공 칭다오시

제주특별자치도(한) – Ningbo시(중) – 나라시(일)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중국 저장성 Ningbo시(寧波市), 일본 나라현 나라시(奈良市)는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다채로운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폐막에 즈음하여 3개 지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Ningbo 제안」,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주문화선언」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나라 선언」을 채택하고 이후에도 문화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3개 지역은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교류 사업에 파트너 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각종 국제행사에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을 초청·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선정연도의 문화도시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중·일 도시들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Ningbo시는 제주도, 나라시에서 추진하는 교류행사에 청소년들을 파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청소년 교류·문화 관련 행사에 제주도과 나라시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2016년 12월: 「닝보제안」, 「제주문화선언」 및 「나라 선언」에 서명, 교류 지속에 합의

제주도, Ningbo시, 나라시는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도시 간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닝보제안」(12월 7일), 「제주문화선언」(12월 16일) 및 「나라 선언」(12월 26일)에 각각 서명했다. 세 문화도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청소년 교류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6월 16일~9월 14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패널리시회' 개최 (다수의 전시장소에서 개최), 각 도시의 독자적인 문화를 살린 예술공연영상 촬영하여 각 도시 행사에서 상영
청주시	10월 6~16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공연영상 문화교류(청주시 3편, 칭다오시 2편, 니가타시 1편)



2020년 니가타시에서 촬영되어 각 도시에서 상영된 '니가타 총춤' 공연

사진제공
니가타시

2021년

주최	일시	내용
청주시	8월 25일~12월 31일	〈2021 청주스토리 영상〉(웹드라마, 중·일 유학생과 함께 하는 '청주스테이')을 칭다오시·니가타시에 공유
청주시	11월 13일~12월 31일	지역예술 문화교류(버닝, 태평무, 괴의가락지 등 공연영상 총 12편을 칭다오시 웨이보, 니가타시 유튜브 공식계정에 게시)



청주시 지역예술공연 영상 괴의가락지 남석교편

사진제공
청주시

2022[예정]

주최	일시	내용
청주시	미정	2022 지역예술 문화교류 및 2022 도시 문화예술 소개영상 교류 예정

제주도 주최 행사

제주문화외교관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 캠프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제주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전교육프로그램이다. 제주도와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가 2018년부터 공동개최하며, 약 4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제주문화클래스(국내, 연중 총 4회 진행)와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국내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2016년부터 매년 약 나흘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초기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Ningbo시, 나라시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부터는 제주도와 교류관계에 있는 다른 한중일 도시에서 약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였다.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개최실적

회차	일시	참가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연도)	내용
제1회	2016년 7월 26~28일	한국: 제주(2016) 중국: Ningbo(2016) 일본: 나라(2016)	서예와 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제주 문화예술 거장과의 만남을 진행
제2회	2017년 8월 16~19일	한국: 제주 중국: Ningbo 일본: 나라	'지속 가능한 바다이야기'를 주제로 음악, 사진, 미술 3분야의 멘토가 참여해 50명의 한중일 청소년들에게 현장방문, 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
제3회	2018년 5월 9~12일	한국: 제주, 광주(2014), 청주(2015), 대구(2017) 중국: 취안저우(2014), Ningbo, 다롄, 상하이 일본: 오키나와 (나라시는 제주도에 서 개최하는 다른 행사 참석을 위해 불참)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중일 청소년들이 음악·미술·영상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멘토들의 도움 하에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
제4회	2019년 9월 20~23일	한국: 제주, 청주(2015) 중국: Ningbo 일본: 나라, 야마나시, 사가	'지구이야기'를 주제로 한중일 청소년 이 사진, 음악, 미술, 무용의 4개 분야 팀을 이루어 일회용품 줄이기, 바닷물 활용 친환경 필름 인화 체험, 지구모형 제작 등 친환경예술프로젝트 수행

제5회*	2020년 9월 21일~11월 23일	한국: 제주 중국: Ningbo 일본: 나라	'마음 한 그릇'을 주제로 50명의 한중일 청소년이 7개 팀으로 나뉘어 오리엔테이션, 문화클래스, 그룹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성과공유회에서 함께 만든 결과물들을 공유(비대면 총 6회)
제6회*	2021년 8월 13일~11월 13일	한국: 제주 중국: Ningbo 일본: 나라	총 34명의 한중일 청소년이 5개 팀으로 나뉘어 음악 워크숍, 서예 워크숍, 팀별 네트워킹 및 성과공유회 진행 (비대면 총 6회)
제7회*	2022년 5~11월 [예정]	한국: 제주 중국: Ningbo 일본: 나라	미정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해당 연도는 Ningbo시의 '한중일 교류 프로그램 in Ningbo', 나라시의 '동아시아 문화창조 NARA 클래스'와 연계하여 세 도시가 공동주최함

2021 '제6회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사진제공
제주도



탐라문화제(연계) 국제문화축제

제주도 최대 규모의 문화행사인 '탐라문화제'기간에 이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한중일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현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한중일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공연 및 워크숍)을 운영한다. 문화체험교실은 2016년 일본 나라측에서 참가한 공연자들의 제안사항에 따라 그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매년 도내 초등학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한중일 전통문화예술 방문공연, 중국·일본 문화교실 등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다른 일본 도시들도 자체 행사에 이와 같은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2019년도 참가학생들의 활동 소감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연단의 용춤이 멋있었고 중국 여행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옆에서 중국참가자들이 박자를 맞추어 주어서 감사했다. ▲일본춤을 직접 춰볼 수 있어 좋았고 공연단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게 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다음에 또 다시 체험을 한다면 다른 체험도 해보고 싶다.



탐라문화제(연계) 국제문화축제 개최실적

일시	중·일 참가도시(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연도)
2016년	나라(2016)
2017년	취안저우(2014), 닝보(2016), 요코하마(2014), 나라
2018년 10월	취안저우, 닝보, 교토(2017), 상하이, 하이난
2019년 10월	취안저우, 닝보, 시안(2019), 상하이, 나라, 요코하마, 아오모리, 홋카이도 - 'COVID-19 & HUMANS' 국제사진교류전에 사진 출품
2021년 10월	시안, 닝보, 홋카이도, 아오모리 - 공연예술교류를 위한 영상 출품

2021년 12월: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닝보·나라 예술제

제주도는 2021년 12월 27일 제주·닝보·나라 3개 도시 간 교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기획공연을 개최하였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기획된 공연은 '삼색으로 피어나는 문화의 화음'의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교류도시를 상징하는 전통음악의 원류를 다양한 음악적 해석으로 편곡해 클래식, 민요, 퓨전국악, 힙합 댄스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관객에게 제공하였다.



2019 '어린이와 함께 찾아가는 한중일 문화체험교실'(닝보) 중국 '모란' 그리기 프로그램

사진제공
제주도

제주 민요를 편곡하여 연주 중인 닝보 음악인들의 모습

사진제공
제주도

닝보시 주최 행사

닝보시에서는 닝보국제대학생축제, 청소년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도, 나라시와 각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또한 매년 다양한 주제와 양식을 바탕으로 한중일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명	일시	내용
'닝보국제대학생 축제'(제주도 대학생 초청)	2017년 6월	2012년부터 개최. 한중일을 포함한 200여명의 해외대학생과 중국 내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약 나흘 간에 걸쳐 중국 전통문화체험, 현지방문, 닝보시 대학생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2018년 7월	
	2019년 6월	
	2021년 4월	
2개 지역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나라시 고등학생 초청)	2017년 11월	저장성 방직직업기술학원에 방문하여 중국 서화 그리기, 중국 매듭 만들기 등 체험활동 진행
	2018년 9월	박물관, 천일각 도서관 참관, 닝보시 용강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월병 만들기 체험활동 진행
	2019년	'한중일 교류프로그램 in Ningbo'로 대체 운영(아래 내용 참고)
'한중일 교류 프로그램 in Ningbo'	2017년 11월	'한중일 도예 전승인 전시회' 및 '한중일 전통 수공예세미나'(전시·워크숍)
	2018년 6월	닝보시 상산현 제1회 해양어문화보호축제에 제주도, 나라시 및 청주시(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참가
	2019년 8월	'경상닝보(鏡像寧波)' * 한중일 학생 사진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닝보의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팀별로 촬영한 전시작품을 소개 발표함 <small>*경상(鏡像): 앵글에 담은 모습, 모양</small>
	2020년 9~11월*	'초심·애심·동심'을 주제로 닝보시, 제주도, 나라시에서 각 20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혼합팀을 꾸려 매월 온라인 활동에 참가. '도시관광포스터', '코로나와 우리의 생활', '고향미식요리' 등을 주제로 교류활동 진행
	2021년 8~11월*	'세 문화도시 간 우의'를 상징하는 노래 가사 짓기, 닝보시 '사지(四知)'서예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해당 연도는 제주도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나라시의 '동아시아 문화창조 NARA 클래스'와 연계하여 세 도시가 공동주최함



2020년 제6회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에 참가한
중국 학생 참가자의 모습

사진제공
닝보시



2021년 제7회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에 참가한
중국 학생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닝보시

나라시 주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창조 NARA 클래스

나라시는 제주도 및 닝보시와의 협력 하에 청소년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집된 나라시 청소년들은 먼저 강연 등을 통해 한중일 문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나라시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법을 배운다. 이어 한·중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나라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 희망자에 한해 제주도·닝보시를 방문하고 각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상호이해를 보다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3개국에서 순환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트너 도시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한 참여 위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2019년도 한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in NARA

사진제공
나라시



2019년 사례

2018년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① '동아시아 배움의 문'(6월 16일 오리엔테이션, 7월 7일 답사 및 워크숍, 7월 21일 성과 발표회)
- ② '한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in NARA[8월 24-25일 한중일 대학생 및 고등학생(나라시 20명, 제주도 10명, 닝보시 10명)이 나라시에 모여 '자신의 지역, 마을의 숨겨진 매력'을 주제로 사진, 시, 음악 형식으로 발표 진행, 연극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 등 문화교류 활동 실시]
- ③ '동아시아로의 여행'[닝보시 개최 청소년교류프로그램(8월 8-11일) 및 제주도 개최 청소년문화예술캠프에 참가(9월 20-23일)]
- ④ 프로그램 보고회(9월 29일)

2020년 사례

온·오프라인 개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제주도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닝보시의 '한중일 교류 프로그램 in Ningbo'와 연계하여 세 도시가 공동주최함

- ① 오리엔테이션(9월 21일): 제주도 12명, 중국 닝보시 21명, 나라시 16명 기타큐슈시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가(대학생·고등학생)
- ② 그룹워크숍(9월 27일, 10월 24일): '코로나와 우리 생활 리서치', '내가 모델이 되'

부산광역시(한) – 상하이시(중) – 나가사키현(일)

는 도시관광 포스터, '우리 동네 소울 푸드!' 등 3가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Skype로 중계

③ 성과공유회(11월 23일): 제주도 12명, 나라시 18명, 닝보시 21명 기타큐슈시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가(대학생·고등학생)

2021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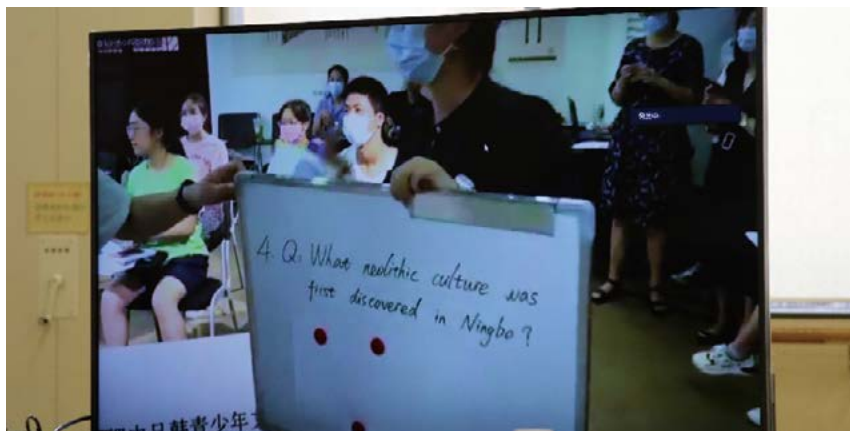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개최

- ① 오리엔테이션(8월 28일, 나라시 주최): 나라시 11명, 제주도 10명, 닝보시 12명의 참가자들이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도시 소개퀴즈 등 온라인 활동에 참가
- ② 그룹워크숍(9월 11일, 10월 30일, 제주도 주최):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나뉘어 온라인 토론에 참여
- ③ 음악교류 프로그램(9월 25일, 제주도 주최): 도시별로 제주도에서 작성한 오리지널 곡을 바탕으로 작사
- ④ 나라시 아트체험 투어(10월 9일): 나라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나라시의 저명한 불교사원 '사이다이지' 등에서 워크숍 진행
- ⑤ 서예 교류 프로그램(10월 23일, 닝보시 주최): 강연을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자를 직접 써보는 체험활동을 진행
- ⑥ 성과공유회(11월 13일, 제주도 주최): 활동 성과를 PPT형식으로 공유



2021년도 한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in NARA

사진제공
나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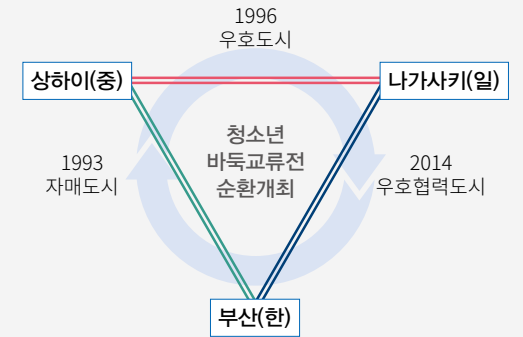
청소년 바둑교류를 통한 한중일 교류

부산광역시,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은 이웃나라로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93년 부산광역시·상하이시 자매결연, 1996년 상하이시·나가사키현 우호도시 체결, 2014년 부산광역시·나가사키현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따라 3자 간 트라이앵글 교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세 도시·지역은 과장급 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2017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3회 과장회의 시 나가사키현의 제안으로 청소년 바둑교류대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2018년 1월 상하이에서 제1회 한중일 3도시 청소년 바둑교류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3개 도시에서 순회개최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파트너 도시인 중국 하얼빈시 및 일본 가나자와시와도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5년~: 제1회 한중일 3도시 교류과장회의 개최

한중일 3도시 교류과장회의는 2014년 5월 나가사키현이 부산시-상하이시-나가사키현 3자 과장회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되었다. 2015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교류과장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6~8월 2박 3일 일정으로 순회 개최해왔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행 추진 사업 점검 및 도시별 희망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개최 실적

회차	개최시기	개최지	의제
제1회	2015년	상하이	양자 간 청소년 교류사업의 3자 간 사업으로 확대방안
제2회	2016년	나가사키	웹사이트 상호링크, 정보제공, 크루즈선 관광객 유치 등 관광교류방안
제3회	2017년	부산	3도시 청소년 바둑교류대회 및 복지교류
제4회	2018년	상하이	노인복지, 도시홍보, 문화재 보호 관련 교류사업
제5회	2020년	나가사키 (비대면 개최)	기존교류사업 향후 계획 논의 및 신규사업 제안
제6회	2022년[예정]	부산	미정



제5회 한중일 3개 도시 한중일
3개 도시 교류과장회의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제3회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바둑교류대회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2018년~: 한중일 청소년 바둑교류대회 순환 개최

한중일 청소년 바둑교류대회는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는 세 도시·지역 간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경기력 향상, 글로벌 마인드 및 소통 능력 함양, 3국 역사 및 문화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약 20명의 한중일 학생들이 참가하며 3박 4일간 바둑경기, 문화시설·역사유적지 견학, 교류활동 등이 진행된다. 2021년 제3회 바둑교류대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하루 동안 총 4팀(부산 2팀, 상하이 1팀, 나가사키 1팀, 팀별 5명씩 참가)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5대5 단체전, 2개 도시 간 대전으로 3경기씩 실시하였다.

바둑을 통한 3개 도시·지역 간 교류는 이 밖에도 '여수(한)-양저우(중)-가라쓰(일)', '전주(한)-쑤저우(중)-가나자와(일)' 등 여러 사례가 있으나, '부산-상하이-나가사키'의 경우 참가자의 연령대가 13~18세로 낮은 점이 특징이다.

바둑은 한중일 공통의 문화이며, 3국 간 공유가 가능한 바둑 룰 덕분에 언어의 장벽이 낮은 편이다. 대회 주최측에서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동의 바둑 룰을 통해 참가자들 간에 통역 없이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최 실적

	개최시기	개최지
제1회	2018년 1월	상하이
제2회	2019년 1월	나가사키
제3회	2021년 4월	부산(비대면 개최)
제4회	2022년[예정]	상하이

대구광역시(한) – 창사시(중) – 교토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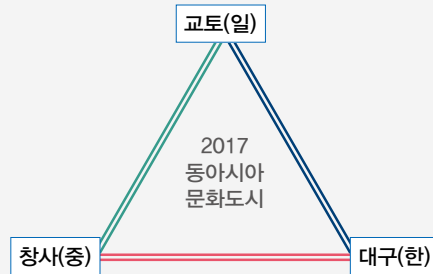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광역시, 중국의 후난성 창사시(長沙市), 일본의 교토부 교토시(京都市)는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전개했다. 2017년 11월 19일 개최된 교토 폐막식에서 세 도시의 시장들은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공동선언문」(사진제공: 교토시)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예술계 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 간 지속적인 문화교류 실시
- ▲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대학, 기업 등 민간 문화교류 활동 기회 창출 및 상호 도시 간 매력 고양
- ▲ 3개 도시의 폭넓은 교류 촉진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추진, 동아시아 평화적 발전에 공헌

이 선언문에 따라 2018년 이후 실시된 후속사업은 주로 청소년교류(예술계 대학생 상호방문·교류)와 문화교류(상호 문화행사 참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후속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에서 문화·예술계의 대학생·청년들 간 교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와 창사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교류경험을 계기로 2018년 7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교토시



2018년 8월: 대구시와 교토시, 청소년교류 사업 실시

대구광역시와 교토시는 「교토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청소년교류 사업을 진행하였다.

교토시 교류 프로그램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와 교토에서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교토의 생활문화·전통산업 현장학습과 그룹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일본 문화의 공통점과 다양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만화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토시에서는 교토시립예술대학, 교토조형예술대학, 교토미술공예대학, '교토 학생홍보대사' 등 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에서 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 사진제공 교토시



대구광역시 교류 프로그램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와 교토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간 교류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대구광역시의 문화시설 및 성악콩쿠르 본선 견학, 세미나 청강, 2018 대구 보자기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교토시 도시샤여자대학 학예학부 음악학과 학생 8명과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서 9명의 대구광역시 학생들이 참가했다.

2018년 8월: 대구 '2018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 교토시와 창사시 참가

교토시와 창사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2018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 2017년에 이어 참가했다. 이 축제는 보자기의 포용성과 다양성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되었던 2017년 처음 개최되었다.

축제기간 동안 한중일 청년 아티스트들의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길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청년예술제'가 개최되었다. 또한 교토시에서 온 현대무용가의 공연과 3개 도시 전통악기 연주자들의 '한중일 전통음악 합동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한편, '보자기 작품 체험전'에는 교토시와 창사시에서 온 전통공예 장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이 한중일의 전통공예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보다 앞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위한 홍보관도 개설되었다. 광주광역시(2014년)의 관광명소 VR기기 체험, 청주시(2015년)의 '젓가락 페스티벌'과 연계된 젓가락 만들기 및 교구체험, 제주특별자치도(2016년)의 갈옷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2018년 11월: 교토시 'kokoka (국제교류회관) 오픈데이 2018 및 평화기념사업'에 대구시 참가

교토시에는 약 4만명(인구의 약3%)에 달하는 해외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1월 3일 교토시 국제교류회관(kokoka)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타문화를 즐기므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kokoka 오픈데이 2018 및 교토시 평화기념사업'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시 전통국악단이 참가하는 한중일 3국 예술가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2019년 3월: KYOTO STEAM 한중일 스테이지에 대구시와 창사시 참가

교토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를 지속하고 문화의 힘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KYOTO STEAM-세계문화교류제-Prologue' 행사와 함께 한중일 3개 도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스테이지'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교토시의 브레이크댄스와 판토마임 및 미술, 대구광역시의 전통음악, 현대무용 및 뮤지컬 갈라, 그리고 창사시의 클래식 음악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했다.

창사시 예술가들의 공연



사진제공
교토시

대구시 예술가들의 공연



사진제공
교토시

2019년 7월~: 청소년 문화교류 및 상호 축제 참가 후속사업 지속

청소년 교류

교토시 주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교토시와 대구시에서 예술분야(디자인, 사진)을 전공하는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문화체험,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하였다.

대구시 주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시와 교토시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음대생 각 9명이 문화교류체험 행사에 참여하여 같은 시기 대구에서 개최된 '2019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서 플루트 합주 공연을 진행했다.

문화 교류

교토시 주최: 11월 3일 'kokoka오픈 데이'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 공연에 대구시가 10명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했다.

대구시 주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19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서는 대구시립국악단의 향발무, 창사시 청년무용단의 무용과 변경, 교토시 다이스케 스트리트 서커스 등 한중일 문화공연이 열렸다. 그와 함께 한중일 레지던시 전시, 한중일 문화체험 부스, 3국 푸드장터 등이 운영되었다.



◀ '2019 동아시아 보자기페스티벌'
[한국]천연 황토염색체험

사진제공
대구광역시



◀ '2019 동아시아 보자기페스티벌'
[중국]전통장신구 '겔' 만들기

사진제공
대구광역시



◀ '2019 동아시아 보자기페스티벌'
[일본]직물제조 체험

사진제공
대구광역시

2021년 11월: 대구 '2021 동아시아 이야기축제' 개최



▶ '2021 동아시아 이야기축제' 행사 포스터

출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개최한 '2021 동아시아 이야기 축제'에 창사시와 교토시가 참가했다. 이 행사는 '삼국 사람책 이야기 콘서트'를 주제로 한 강연, 한중일의 신화, 이야기, 구전문학을 무용극 등으로 표현한 공연물 상영회, 한옥에서 열리는 3국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인문교류 활동이 진행되었다.



▶ '2021 동아시아 이야기축제' <삼국 사람책 이야기 콘서트>

출처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한) – 하얼빈시(중) – 가나자와시(일)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부산광역시, 중국의 헤이룽장성 하얼빈시(哈爾濱市), 일본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金沢市)는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다채로운 교류 사업을 전개했다. 2019년부터는 문화 후속사업을 개시하고 문화교류 행사에 아티스트들을 상호파견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상하이시, 나가사키현과의 자매·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바둑교류전을 순환개최하고 있고, 가나자와시는 한국 전주시, 중국 쑤저우시와의 우호·자매도시 관계를 기반으로 도서관·바둑 교류 사업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는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후속사업을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3개 도시는 각 도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아티스트들을 상호파견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다.

2019년 후속사업

일시	내용
8월 2 – 3일	하얼빈시에서 주최하는 2019 '매혹적인 하얼빈의 여름' 제3회 중·러 문화예술 교류주간 '문화도시·우호도시' 클래식 공연시리즈에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단 참가
8월 23 – 24일	하얼빈시에서 주최하는 2019 '매혹적인 하얼빈의 여름' 제3회 중·러 문화예술 교류주간 '문화도시·우호도시' 클래식 공연시리즈에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단 참가
9월 21 – 22일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동아시아 문화의 숲'에 가나자와·하얼빈 예술가 참가(한국 첼리스트-중국 바이올리니스트-일본 피아니스트 클래식 협연, 한국 가야금-중국 얼후-일본 요코부에 한중일 전통악기 협연, 동래야류, 변검술, 기예단 등 전통공연 및 한중일 전통놀이체험, 동아시아 다도체험, 가나자와 전통공예버스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진행)
10월 18 – 20일	가나자와시에서 주최한 가나자와 시립 치사카 소합창단 '드림'과의 교류 행사, 가나자와역 고문나이트 공연 및 창립 70주년 킨조민요축제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하얼빈대극원 민족악단 참가

▶ 부산 주최 '2019 동아시아 문화의 숲' 한중일 클래식 협연

출처
부산시립예술단



▶ 가나자와 주최 '킨조민요축제'에 참가한 하얼빈 예술단

사진제공
하얼빈시



▶ 하얼빈 주최 '문화도시·우호도시' 클래식 공연시리즈에 참가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사진제공
하얼빈시



2021년 후속사업

일시	내용
10월 8~9일	부산광역시 주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희망의 메시지 On Live'에서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한중일 화합콘서트' 개최(유튜브 생중계)



▶ 부산 주최 '동아시아 문화도시 희망의 메시지 On-Live' 행사포스터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2022년 후속사업

일시	내용
3월	도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가나자와 우미미라이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에 100권 도서 기증 예정 * 2023년에는 부산도서관에서 우미미라이도서관에 기증 예정
미정	가나자와 · 하얼빈시 문화 영상제작 및 홈페이지 공개 예정
미정	부산 주최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 문화교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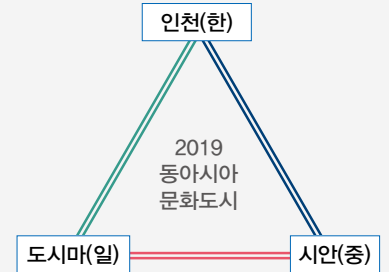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한) – 시안시(중) – 도쿄도 도시마구(일)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광역시, 중국의 시안시(西安市), 일본의 도쿄도 도시마구(豊島區)는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동아시아(한·중·일)의 문화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1년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11월 세 도시는 1년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교류하며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12월 「인천-시안-도시마(InXiTo) 문화관광 결연사업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중국의 다롄시, 일본의 기타큐슈시와 함께 2010년부터 시립 박물관 간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박물관장회의 및 사전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격년으로 순회전시 및 공동기획전시를 운영해 왔다.



2019년 11월: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선언」 체결, 교류 지속에 합의

인천광역시, 시안시, 도시마구는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문화교류, 공연, 축제, 전시실 및 체험관 등 다채롭고 풍부한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11월 24일 개최된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도시마 폐막식에서 세 도시는 1년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교류하며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세 도시는 인적, 문화 교류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호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한다.
2. 세 도시는 문화예술을 비롯한 산업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세 도시의 대표와 관계부서는 상호교류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매년 확인한다.

2019년 12월: 「인천-시안-도시마(InXiTo) 문화관광 결연사업 협력합의서」 체결, 문화관광 분야 협력 확대

세 문화도시는 2019년 12월 개최된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안시 폐막식'에서 「인천-시안-도시마(InXiTo) 문화관광 결연사업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에도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0년 후속사업

개최지	일시	내용
시안	8~9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세 도시가 서로 도와 바이러스에 맞선다는 '한 가족, 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중국 의료종사자가 제작한 곡을 한중일 세 가수가 함께 부르는 영상을 공동제작하여 SNS에 공개
인천	11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내 거주 중인 동(남)아시아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대상으로 '동아시아합창제' 개최 시안시, 도시마구의 단체장 인사말 및 합창단의 온라인 영상 참여
시안	12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문화도시 신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한중일 교향악 연주회 진행, 행사 전날에는 시안 문화·관광 안내행사 개최 역대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아세안 10개국 참가



2021년 후속사업

개최지	일시	내용
시안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만한 봄의 문화도시, 새해를 맞이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문화 전시공연 개최 인천시, 도시마구와 상호 영상교환, 각 도시 Twitter, Facebook, YouTube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
인천	11월 18-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3국의 음악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2021 동아시아축제' 개최 시안시, 도시마구의 클래식 음악과 전통음악 연주영상 참가 동아시아 3국 악기체험 및 전시회 개최

▶ 인천 주최
'2021 동아시아축제 인천'에 참가한 도시마구 후지모토 바야시 합주단

사진제공
인천광역시



▶ 인천 주최
'2021 동아시아축제 인천'에 참가한 시안심포니오케스트라

사진제공
인천광역시



◀ 2020년 한중일 합창공연 공동제작 영상 홍보포스터

사진제공
시안시

2022년 후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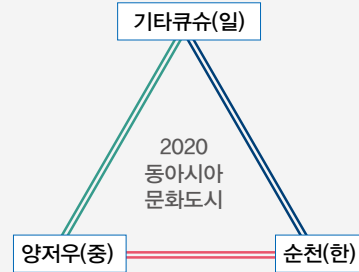
개최지	일시	내용
시안	2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신년 음악회
도시마	미정	인천시와 도시마구에서 클래식 연주, 서예 작품 영상 출품
		학생 온라인 교류행사

순천시(한) – 양저우시(중) – 기타큐슈시(일)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전라남도 순천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揚州市),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모두 자연환경과 인연이 깊은 ‘생태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를 보유하여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았고, 양저우시는 ‘국가 문화관광 모범지역’인 촉강 수서호 풍경 명승구를 가진 정원도시이며, 기타큐슈시는 공업도시로서의 급격한 발전과정에서 생긴 공해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인정받아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순천시와 기타큐슈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2021년으로 순연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양저우시는 전라남도 여수시,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와 함께 1999년부터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친선 바둑대회를 운영해 왔으며, 기타큐슈시는 인천광역시, 중국 다롄시와 2010년부터 시립 박물관 간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식에서 3국 문화장관에게 선정패를 수여받는 문화도시 대표들의 모습 (왼쪽부터 기타큐슈시장, 순천시장, 양저우 부시장)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21년 4-10월: ‘2021 양저우 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 참가

양저우시는 2021년 4~10월 약 7개월에 걸쳐 ‘2021 양저우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양저우시는 순천시에서 제공한 자연경관과 도시 특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순천원(順川園)’을 설계·조성하였다. 순천원은 순천만 습지의 특성에 더해 휴식기능을 접목시킨 경관구조물로서 한국 민가건축의 전통재료와 양식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2021 양저우 세계원예박람회에 조성된 ‘순천원(順川園)’ 전경

사진제공
양저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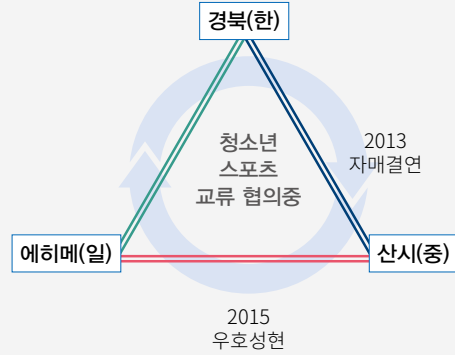


경상북도(한) – 산시성(중) – 에히메현(일)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계기, 3지역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 추진 합의

경상북도, 중국 산시성(陝西省), 일본 에히메현(愛媛縣)의 3자 교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경상북도는 산시성과 2013년 4월 자매결연, 산시성과 에히메현은 2015년 우호성현을 맺은 바 있다.

2019년 10월 일본 에히메현에서 개최된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계기로 경상북도-산시성-에히메현 3자회담이 마련되었고,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3지역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 추진에 합의하였다.



▶ 경상북도-산시성-에히메현 온라인 실무자회의
사진제공 경상북도

2021년 11월: 실무자 간 스포츠교류 화상회의 개최

3도성현 실무자들은 2021년 11월 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의 부대행사 '교류의 광장'에 참가해 화상회의를 열고 청소년 스포츠 교류 시기, 종목, 인원, 경비지원, 선수 레벨, 최초 개최지역, 순회지역 결정방법,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2019년 10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계기 첫 3자회담 개최

3지역은 2019년 10월 28일 일본 에히메현에서 개최된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교류의 광장'에서 최초의 3자회담을 가졌다. 현재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청소년 스포츠 교류 3국 순회 개최를 위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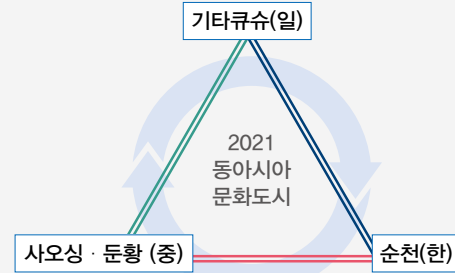
◀ 경상북도-산시성-에히메현 3자회담
사진제공 경상북도

순천시(한) – 사오싱시·둔황시(중) – 기타큐슈시(일)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전라남도 순천시,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紹興市), 간쑤성 둔황시(敦煌市)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일본은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2021년으로 순연하였고, 중국은 사오싱시와 둔황시 2개 도시를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새로 선정했다.

4개 문화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3국 간 문화 협력과 침체된 국제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년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도시는 이후 후속사업과 국제자매결연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11월: 「동아시아문화도시 2021 공동선언」 체결, 미래를 잇는 교류 지속에 합의

2021년 11월 28일 개최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기타큐슈 폐막식에서 순천시, 사오싱시, 둔황시, 기타큐슈시는 지난 1년간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발전을 위해 「공동선언」에 조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4 도시는 문화, 예술분야의 도시 간 교류,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2. 4 도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서로의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3. 4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의 구축, 동아시아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동아시아문화도시 2021 공동선언」 조인식

사진제공
기타큐슈시



2022년 후속사업[예정]

개최지	일시	내용
순천	9월 중	제2회 그림책·『웹툰』 페스티벌(일본 기타큐슈 전시(작품·박물관 소개), 부대행사, 공연, 포럼 등)
순천	하반기	한·중 「문학」 교류 행사(동아시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문학기행)
순천	미정	한중일 「전통의상」 관련사업(한중일 전통의상 세미나, 전통의상 체험관, 전통의상 사진 공모전)
기타큐슈	미정	「온라인 라이브 페인팅」(각 도시 초등학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는 문화교류 활동)

경주시(한) – 원저우시·지난시(중) – 오이타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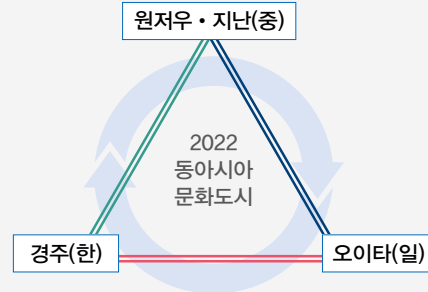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경상남도 경주시,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溫州市)·산둥성 지난시(濟南市), 일본 오이타현(大分県)은 2021년 8월 30일 개최된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2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되었다.

경주시는 청정해역과 해안선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며, 노천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도시 자체가 문화재인 역사문화도시로서 풍부한 문화여건을 가지고 있다. 원저우시는 삼면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중국 남부 대외무역 중심지로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구축하였으며, 산

둥성의 성도(省都)인 지난시는 72개의 유명한 샘으로 '샘물의 도시(泉城)'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오이타현은 일본 최고의 온천 용출량과 원천수를 자랑하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천수 10종 중 8종을 보유한 온천지역으로 유명하다.

이들 문화도시는 2022년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연대, 아시아적 공감을 통한 도시문화 협력을 촉진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2장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메커니즘 및 행사



3국 문화장관에게 선정패를 수여받는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들의 모습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문화도시

3개 도시 간 대규모 문화 교류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

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한중일 3국 정부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또는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1~2곳씩 선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3개 도시 간 교류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상호이해와 연대감 형성을 촉진하고 역내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사례로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에서 각각 1985년과 2008년부터 실시한 ‘유럽문화수도’와 ‘아세안 문화도시’ 사업이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은 각 도시의 문화적 개성을 살리고 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들은 해당연도가 지난 이후에도 한중일 문화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각국 내에서 다른 연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아세안 문화도시 및 유럽 문화수도와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지속될 경우, 한중일 도시 간 트라이앵글 교류는 매년 1개씩 새로운 교류 도시 그룹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중일 국민들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14년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2015년	청주시	칭다오시*	니가타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닝보시	나라시
2017년	대구광역시	창사시	교토시*
2018년	부산광역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2019년	인천광역시*	시안시	도쿄도 도시마구
2020년	순천시	양저우시	기타큐슈시*
2021년	순천시	사오싱시, 둔황시	기타큐슈시*
2022년	경주시	원저우시, 지난시*	오이타현
2023년	전주시*	미정	미정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예정)지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로고

자료 제공
위에서부터 중국 원저우시·지난시, 한국 경주시, 일본 오이타현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년 이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지로 기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문화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정부 간 회의로 문화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출범 이후 개최국의 당해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매년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다음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식이 개최된다. 2021년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차기 회의는 2022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이후 개최실적

회차	일시	개최지	결과문서
제6회	2014년 11월 29일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공동 성명」
제7회	2015년 12월 20일	칭다오시	「칭다오액션플랜」
제8회	2016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선언」
제9회	2017년 8월 26일	교토시	「교토선언」
제10회	2018년 8월 30일	하얼빈시	「하얼빈선언」
제11회	2019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	「인천 선언」
제12회	2021년 8월 30일	기타큐슈시 *비대면 개최	「기타큐슈 선언문」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6년 12월: 닝보 주최 '동아시아문화도시 원탁회의'

닝보시는 2016년 12월 7일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폐막식과 연계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제주도와 나라시를 비롯하여 중국 문화여유부(당시 문화부), 역대 문화도시인 광주광역시(2014년), 청주시(2015년), 대구광역시(2017년), 취안저우시(2014년), 칭다오시(2015년), 창사시(2017년)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각 도시 대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역할과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와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닝보 제안」에 서명했다. 또한 2014~2017년 12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이름을 한중일 언어로 새긴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비 제막식이 함께 개최되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원탁회의

사진제공
닝보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비

사진제공
닝보시

2017년 8월: 교토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개최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교토시는 2017년 8월 26일 국립교토국제회의장에서 일본 문화청의 지원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을 개최했다. 2014~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아세안 문화도시 등에서 19명의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도시의 문화도시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채택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교토선언문」 내용에는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단체·기업 간 폭넓은 문화교류 기회 창출, ▲각국 정부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 문화도시와의 연계를 감안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정기개최 등이 포함됐다.

참여국가	참여 문화도시(선정년도)/아세안 국가
한국	광주광역시(2014), 청주시(2015), 제주특별자치도(2016), 대구광역시(2017), 부산광역시(2018)
중국	취안저우시(2014), 칭다오시(2015), 닝보시(2016), 창사시(2017), 하얼빈시(2018)
일본	요코하마시(2014), 니가타시(2015), 나라시(2016), 교토시(2017, 주최도시), 가나자와시(2018)
아세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서밋

사진제공
교토시



2019년 10월: 중국 양저우시 '아세안+3 문화도시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중국 양저우시는 2019년 10월 25일 아세안+3(APT) 문화도시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최기관인 중국 문화여유부를 비롯해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아세안 문화도시 대표단, 각국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각 도시 대표들은 APT 문화도시 네트워크 설립을 선포하고, ▲상호이해와 신뢰 제고, ▲문화교류협력 촉진, ▲관광산업 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 증진 등에 합의했다.



아세안+3(APT) 문화도시 네트워크 발대식 기념 단체사진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9년도 한국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워크숍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한국 '2019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워크숍'

한국측 초대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는 한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실무진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류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3국의 여건 변화에 대한 문화도시 간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 10~11일 양일간 2019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한국의 5개 동아시아문화도시(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및 순천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관련 기관에서 1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발전을 위한 각국 내 문화도시 간 연대 강화 노력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훈련프로그램'

2019년 8월 13~14일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중국 시안시에서 최초의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훈련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문화여유부가 주최하였으며, 2014~2019년 역대 중국 문화도시와 2020년 선정도시인 양저우시, 2019년 한·일 축 문화도시인 인천광역시와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대표단, 문화부처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도시들은 사업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신청, 검수, 선정 및 관리 실행방안, <동아시아문화도시> 신청조건 및 평가기준, <동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등에 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훈련프로그램'

사진제공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문화청·도시사대학 공동연구 심포지엄 행사포스터

출처
도시사대학

2021년: 코로나 확산에도 동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도시 간 교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확대



일본 문화청·도시사대학 공동연구 심포지엄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목표와 향후 과제' 개최

2021년 2월 22일 일본 문화청과 도시사대학이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목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청과 도시사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성과와 향후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조사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주최측 인사의 강연 및 역대 일본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의 대안발표로 구성되어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중국 하얼빈 '동아시아문화도시' 건설 도시포럼 개최

2021년 7월 20일 도시브랜드 축전행사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건설 도시포럼이 중국 하얼빈시에서 개최되었다. 취안저우, 닝보, 창사, 시안, 양저우, 사오싱, 둔황, 지난, 원저우 등 역대 중국측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단 약 6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각 도시 대표는 이번 행사가 도시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도시 발전을 위한 동력을 촉진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하고, 문화유산 보호, 공공문화서비스 제고, 문화산업 및 관광업 발전 등에 있어 각 도시별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도시브랜드 축전행사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건설 도시포럼

사진제공
하얼빈시

일본 기타큐슈시 제2차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개최

2021년 10월 25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제2차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을 개최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의 창출'을 주제로 한 이번 서밋은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럽문화수도, 아세안 문화도시 등 28개 도시 대표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하여 '코로나 이후 기술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도시문화 교류 증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최측인 기타큐슈시를 비롯하여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인 한국 순천시, 중국 사오싱시와 둔황시 대표가 도시 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학습에 대한 주제발표에 참여했다.



제2차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진제공
일본 문화청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3국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 1999년 이래 연례개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의 자치체국제화협회가 1999년 이후 매년 순환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다.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년 제22회 회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기초강연, 주제발표,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 외에도 33개 한중일 지자체가 참석하는 17개 온라인 실무자 회의인 '교류의 광장'도 개최되었다. 한중일 지자체 공무원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총 1,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 프로그램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모범 사례 공유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방향 및 지방행정 현안사항 토론
- 한중일 홍보부스 및 '교류의 광장' 운영
- 개최도시 지방행정 사례 현장시찰

개회실적

연도	회차	개최지	주제
1999년	제1회	한국 서울특별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
2000년	제2회	중국 베이징시	새천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 전망
2001년	제3회	일본 도쿄도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존립방안
2002년	제4회	한국 서울특별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한 지방의 공동 발전
2003년	제5회	중국 우시시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
2004년	제6회	일본 니가타현	한·중·일 상호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정책
2005년	제7회	한국 강원도	동북아시아의 공동 발전과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
2006년	제8회	중국 하얼빈시	동북아시아의 화합 추진과 공동 발전 실현
2007년	제9회	일본 나라현	동북아시아의 교류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2008년	제10회	한국 전라남도	지역 활성화에 의한 발전 방안
2009년	제11회	중국 창춘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 공동발전 추진
2010년	제12회	일본 나가사키현	지역 간 협력 추진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
2011년	제13회	한국 전라북도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2012년	제14회	중국 쿤밍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2013년	제15회	일본 도야마현	지역 특색을 살린 시책과 동북아시아의 상호 발전
2014년	제16회	한국 구미시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
2015년	제17회	중국 르자오시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 국제화 발전
2016년	제18회	일본 오카야마시	지방정부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방의 활성화
2017년	제19회	한국 울산광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 방안 모색
2018년	제20회	중국 카이펑시	협력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
2019년	제21회	일본 에히메현	동북아 지방정부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 창조
2021년	제22회	한국 서울시 *온·오프라인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
2022년	제23회	중국 장시성 [예정]	미정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2018년 인천 총회

사진제공
기타큐슈시



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경제 특화 한중일 지역 협력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는 한중일 연안 11개 도시로 구성된 경제교류 특화 플랫폼이다. 이 기구는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아시아경제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회원도시 간 연계, 경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동 및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한다. OEAED는 ① '동아시아 FTA' 창설 추진, ② 환황해 환경 모델 지역의 창출, ③ 뉴 비즈니스 창출 시스템 구축, ④ 환황해 관광브랜드 전략의 전개, ⑤ 기술교류·인재육성 플랫폼 형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OEAED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중일 지역교류 중 가장 역사가 긴 플랫폼 중의 하나로, 그 시작은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 도시회의' 및 '동아시아 경제인회의'가 발족했다. 이 두 회의는 초기에는 일본의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던 중국의 다롄시와 칭다오시,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6개 도시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한국의 울산광역시, 중국의 톈진시·옌타이시, 일본의 후쿠오카시 4개 도시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2004년 경제교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10개 도시 간 OEAED가 설립되었다. 2014년 일본 구마모토시가 가입한 이후 현재의 11개 도시 체제가 되었다.

OEAED 조직은 다음과 같이 총회·집행위원회·부회·제삼자평가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된다.

○ 총회

회원도시의 행정·경제단체(상공회의소·국제상회) 대표로 구성되는 OEAED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도시 간 순환 개최된다.

○ 집행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개최되는 실무자 회의로 총회를 보좌하고 각종 과제에 대해서 협의한다.

○ 부회

실무사항을 협의해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국제비즈니스부회, 환경부회, 관광부회, 물류부회 4개 부회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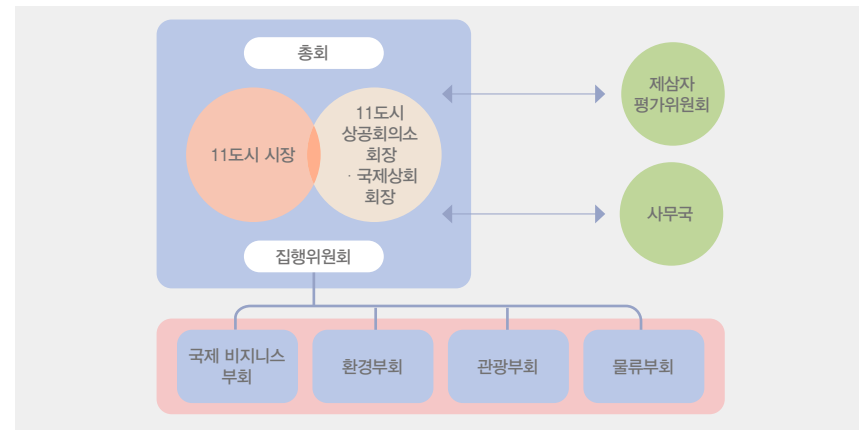
○ 제삼자평가위원회

기구활동·운영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전문적 의견과 객관적 관점에서 조언·평가를 제공하는 기관. 한중일에서 1명씩 총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사무국

기구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타큐슈시·시모노세키시와 일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타큐슈시에 설치하였다.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 조직도



사진제공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홈페이지

총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의제
제1회	2004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창설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제3차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보고
제2회	2006년 11월	중국 톈진시	• 각 도시 시장·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 • 「동아시아 도시경제협력에 관한 천진 선언」 채택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공동 프로젝트의 제안 및 채택
제3회	2008년 11월	한국 울산광역시	• 각 도시 시장·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 • 기구활동 및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제3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제4회	2010년 11월	중국 칭다오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공동 프로젝트 환황해ACTION의 보고 • 각 도시 시장·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 발표 • 환황해 ACTION 양해각서 • 「청도선언」 채택
제5회	2015년 11월	중국 옌타이시	• 각 도시 행정 대표 및 상공회의소·국제상회 대표 발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제3차 평가위원 선임 • 「옌타이선언」 채택
제6회	2018년 10월	한국 인천광역시	• 각 도시 행정 대표 발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기구 개혁안 • 「인천선언문」 채택
제7회	2022년[예정]	일본 시모노세키시	미정

환경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04년 8월	일본 기타큐슈시	환경산업 심포지엄
제2회	2006년 6월	중국 다롄시	중국국제환경보호박람회
제3회	2007년 6월	한국 울산광역시	환경세미나
제4회	2008년 10월	일본 시모노세키시	환경세미나
제5회	2009년 8월	한국 인천광역시	환경세미나, 인천세계도시축전,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6회	2010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에코테크노2020, 규슈·한국·중국 환경 비즈니스 상담회,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7회	2012년 6월	중국 칭다오시	중국국제순환경제 성과교역박람회,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8회	2013년 8월	중국 옌타이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9회	2014년 5월	한국 울산광역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0회	2015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1회	2016년 7월	중국 다롄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2회	2017년 5월	한국 부산광역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3회	2018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4회	2019년 11월	중국 칭다오시	기술교류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해안 클린업 사업 ·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5회	2022년[예정]	한국 인천광역시	미정

관광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05년 9월	한국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관광전(BITF), 관광비즈니스교류회
제2회	2006년 10월	중국 옌타이시	관광비즈니스교류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여행협력발전포럼 · 전람회
제3회	2007년 11월	일본 시모노세키시	국제관광추진심포지엄, 관광비즈니스교류회, 10도시포스터전
제4회	2008년 10월	한국 부산광역시	세계관광투자정상회의(WTI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회의, 관광비즈니스교류회
제5회	2009년 8월	중국 칭다오시	관광비즈니스 교류회, '2009 환황해의 해'개막행사, 청도국제맥주축제
제6회	2010년 9월	일본 후쿠오카시	산업관광세미나, '2010 환황해의 해' 2010 중국국제여유교역회 (상하이)
제7회	2011년 10월	한국 인천광역시	비즈니스 교류회
제8회	2013년 10월	일본 시모노세키시	10도시 관광패널 · 포스터전, 제26회 한국국제관광전(서울)
제9회	2014년 9월	중국 톈진시	2014 중국여행산업박람회
제10회	2015년 9월	한국 울산광역시	2015 태국국제여행박람회 (방콕, 2월 25일~3월 1일), 일본 도쿄 관광전시회(9월 24~27일)
제11회	2016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2016 호치민시 국제여행박람회, 관광설명회
제12회	2018년 11월	중국 다롄시	2020 일본 오사카 관광전시회(2020년 10월 24~27일)

물류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05년 7월	한국 인천광역시	항만PR세션
제2회	2006년 7월	중국 칭다오시	물류비즈니스교류회, 전문가 포럼
제3회	2007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시	물류비즈니스 교류회, 기념강연회
제4회	2008년 10월	한국 부산광역시	물류기업프리젠테이션 · 교류회, 워크숍
제5회	2009년 8월	한국 인천광역시	워크숍 물류비즈니스 교류회, 인천세계도시축전
제6회	2010년 11월	중국 톈진시	

국제비즈니스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14년 7월	한국 부산광역시	
제2회	2015년 7월	중국 칭다오시	
제3회	2016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서일본 국제복지 기기전
제4회	2017년 10월	한국 울산광역시	
제5회	2018년 11월	중국 옌타이시	옌타이시 도시계획전람회 방문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제19회 회의(온라인)

사진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환황해 지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황해 연안지역 참여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황해’를 둘러싼 지역의 경제권(환황해 지역 경제권)을 발전 · 심화하기 위한 교류 플랫폼이다. 1999년 필리핀,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적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하면서 2001년 3월 정식 출범하였다.

이 회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국 상무부 아주사,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 경제산업국 정부기관을 비롯해 관련 지방정부,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무역 · 투자, 기술,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 참여 지역

한국 (9개 도, 6개 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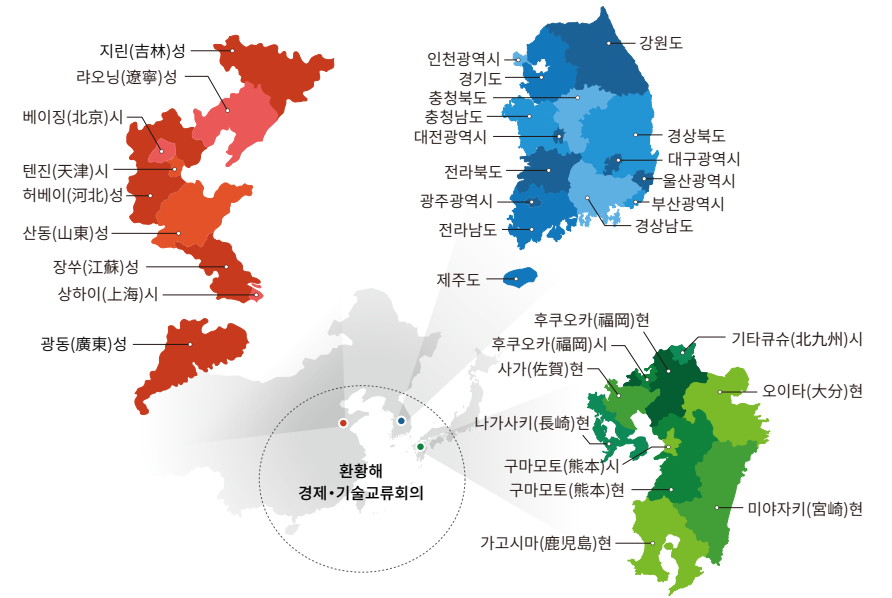
중국 (6개 성, 3개 시)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지린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일본 (규슈지역 7개 현, 3개 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교류도시 · 지역



개최 실적

회차	연도	개최지
제1회	2001년 3월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제2회	2002년 10월	한국 전라북도 전주시
제3회	2003년 9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제4회	2004년 10월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제5회	2005년 11월	한국 대전광역시
제6회	2006년 9월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
제7회	2007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제8회	2008년 10월	한국 인천광역시
제9회	2009년 7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제10회	2010년 10월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제11회	2011년 11월	한국 대전광역시
제12회	2013년 11월	중국 장쑤성 련윈강시
제13회	2014년 11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제14회	2015년 11월	한국 부산광역시 주제 「의료 · 바이오, 신 · 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인재육성」
제15회	2016년 7월	중국 장쑤성 옌청시 주제 「환경에 배려한 이노베이션과 개방적인 융합」
제16회	2017년 11월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 신시장의 창출」
제17회	2018년 11월	한국 전라북도 군산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 신시장의 창출」
제18회	2019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온 · 오프라인 개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 신시장의 창출」
제19회	2021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제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제20회	2022년[예정]	한국 부산광역시 미정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



2019년 워크숍

사진제공
한국 외교부

한국 외교부 주최, 한중일 청년 지방공무원 간 교류의 장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3국 간 지방 차원의 협력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3국 공무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 외교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다. 주요 참가자는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 지방공무원과 한국에서 근무·연수 중인 중국·일본 공무원이다. 이들 중·일 공무원 중 대부분은 한국 지방정부와 자매·우호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청년 지방공무원으로, 3국협력 워크숍은 장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5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중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은 한국측 38명, 중국측 35명, 일본측 15명으로 총 88명의 한중일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3국협력의 현황과 TCS’를 주제로 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야마모토 야스시 전 사무차장의 강연을 비롯하여 정상기 전 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의 ‘한중일 문화차이’ 강연, 한중일 공무원들의 3국협력 사례 발표,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개최실적

회차	일시	개최지	활동내용
제1회	2012년 12월	한국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3국 협력 발전방안 논의 • 각 지자체 간 3국 협력 관련 정책현황 소개
제2회	2013년 9월	한국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소개 • 지자체별 3국 협력 사업 발표 • 3국 협력 정책 관련 발제 및 조별 토의 • 문화행사
제3회	2014년 5월	한국 경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및 주안점 소개 • 3국 협력 사무국 기능 및 업무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사례 발표 • 문화강연
제4회	2016년 6월	한국 강원도 평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사례 발표 및 조별 토의 • 평창 올림픽 준비 현황 소개
제5회	2017년 6월	한국 경기도 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협력 사례 발표 • 3국 문화 관련 강연
제6회	2018년 10월	한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협력 사례 발표 및 문화공연 • 전통문화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제7회	2019년 5월	한국 경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협력 관련 강연 및 3국 공무원 교류 협력 사례 발표 •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
제8회	2022년[예정]	미정	미정

특별세션: 한중일 지방정부 단체장 인터뷰



한국 청주시 한범덕 시장

TCS: 현재 추진/참여 중인 한중일 3자 교류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연간 예산규모, 교류사업 참여인원 등)

한 시장: 청주시는 1986년 일본 돗토리시를 시작으로 중국 우한시(1998년), 미국 벨링햄시(2005년)와 공식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세계 여러 도시들과 자매, 우호 도시 등 여러 형태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대한민국 청주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한중일 세 도시의 교류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 사이 정치적인 이슈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청주, 칭다오, 니가타 세 도시는 7년째 변함없이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각 도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사업과 공연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업 2개 분야입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2년 동안은 현지 방문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국에서 선발된 10명~20명 내외 청소년들이 사진전, 케이팝 댄스 등 MZ세대만의 방식으로 서로의 도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또 청주와 칭다오, 니가타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은 때로는 현지 축제현장에서 펼치는 공연으로, 때로는 영상물로 제작된 공연콘텐츠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매년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데요, 예산규모가 아주 크다고 할 순 없겠습니다만 청소년부터 예술단체, 실무자까지 각 도시에서 한 해 평균 10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는 청주의 대표 국제교류사업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TCS: 해당 3자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또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한 시장: 시작은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입니다. 당시 3국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에 뜻을 모았고, 2014년에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전통과 문화, 예술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 한 곳씩을 선정해 교류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4년 첫 선정된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국의 광주,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의 요코하마였고 이듬해인 2015년 청주가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두 번째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경주와 중국의 원저우시·지난시, 일본의 오이타현이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5일 경주에서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이 진행됐는데, 그 현장에 청주는 선배 동아시아문화도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TCS: 교류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 시장: 국제교류는 아무래도 세계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앞서 언급했듯 국가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문화교류사업이 경색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립은 정치적 사안으로 국가 간 갈등요인은 될 수 있어도 지방도 시간 문화적 교류의 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상호초청, 현지 축제 참여 등 당장의 직접 교류는 어렵더라도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게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어왔죠. 사실 정치적인 이슈보다도 더 치명적인 위기는, 예상했겠지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고 전 세계의 국경이 닫히다 보니 문화예술교류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후순위로 밀렸고, 방역과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 각 도시에서 교류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주와 칭다오, 니가타 3개 도시가 선택한 방법은 '온라인 비대면 교류'였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3개 도시가 언제든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실시간 화상회의, 영상과 사진 교류, 전통 먹거리 배송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면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멈추는 대신 신속하게 새로운 방식의 교류로 전환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자 자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TCS: 코로나19 확산이 교류사업에 가져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 시장: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을 향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처럼 대면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류방식에서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청소년 문화교류에 있어서만큼은 온라인 덕분에 오히려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졌다는 점입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디지털 환경과 SNS 플랫폼 활용이 일상이었던 세대들이라보니 가능했던 변화고, 청소년 스스로 국제교류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재미와 흥미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찾아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대면 교류가 가능한 시점이 오더라도 아무래도 예산이나 방문 일정 등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온라인을 병행해서 연중 교류를 이어간다면 한중일 3국이 한층 더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CS: 아직까지는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한중일 3자간 새로 추진해보고 싶은 교류 분야 혹은 사업이 있다면?

한 시장: 그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각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 또는 각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일이었고 그간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뜻밖의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류방식을 시도하게 됐고, 동아시아 관계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확인하게 된 만큼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문화도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대회를 넘어서 청주와 칭다오, 니가타 각 도시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만의 개성과 정체성이 담긴 게임을 직접 개발해서 그 게임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주에서는 이미 충북글로벌게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토종게임콘텐츠들이 개발돼 세계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고, '게임잼'이라고 해서 아마추어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게임을 개발하는 대회 겸 축제도 해마다 열고 있는데 그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 역량들과 결합한 시도를 해본다면, 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국제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교류도시인 칭다오, 니가타의 동의와 공감기 선결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꿈이겠지만 말입니다.

TCS: 한중일 3자 교류사업 관련하여 SNS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활용 현황과 방식을 소개해 주세요.

한 시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류가 중심이 되면서 SNS 활용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각 도시의 홈페이지와 메일이 주요 소통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국의 웨이보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각 도시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담긴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공식 교류사업 외에도 참여했던 청소년과 예술단체들이 워챗, 라인 등 개인 메신저를 교환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는 각국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틱톡'과 같은 숏폼(short-form)을 적극 활용해서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영상 퍼포먼스로 온라인 교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TCS: 3자 교류사업이 해당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상호 인식변화, 관광객 수, 방문객의 다양화, 유학생 인구 변화 등)

한 시장: 우선 칭다오와 니가타에 대하여 청주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가 보다 가까워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칭다오와 니가타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기에는 세 도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에서 개최했던 '젓가락페스티벌'이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젓가락페스티벌'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공동적으로 존재해온 삶의 도구이자 문화콘텐츠인 '젓가락'을 모티프로 전시·공연·학술행사·시연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축제였는데 해마다 평균 50,000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여할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축제를 통해 발굴된 '젓가락 콘텐츠'들은 동아시아문화도시인 니가타, 칭다오뿐만이 아니라 뉴욕, 파리, 태국,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의 초청으로 해외특별전을 갖기도 했습니다. 축제는 멈췄지만 청주에서는 올바른 젓가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성한 '젓가락 교육자'들이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도 유의미한 성과라고 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3국이 함께한 덕분에 '젓가락'이라는 또 하나의 K-콘텐츠가 발굴된 셈입니다.

TCS: 한중일 지방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TC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시장: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TCS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정세는 어느 한 국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하고 교차적인 이해가 얽힌 문제이고, 국제정세가 경색되면 지방도시 간의 문화교류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또는 민간 교류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긴밀하고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TCS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 문화의 공유를 지향하는 TCS인 만큼 설립 목적 그대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비롯해 한중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고, 국경을 초월한 도움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허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 양저우시 왕진건 시장

TCS: 2022년 예정인 한중일 3자 교류사업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시장: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 만큼 우선은 온라인 교류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솫폼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청소년 온라인 교류의 영역을 확장하고, 각 도시의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을 영상콘텐츠에 담아 교환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한중일 문화도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준비 중인데,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이 그동안 걸어진 길을 함께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꿈꾸고 있는 '동아시아문화도시 e-스포츠 대회'가 실현될 수 있게 세 도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까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한 해가 될듯합니다.

TCS: 청주시는 중국 칭다오시, 일본 니가타현과 함께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7년째 꾸준히 후속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칭다오시와 니가타현도 교류사업에 적극적인가요?

한 시장: 청주와 칭다오, 니가타 세 도시가 올해로 7년째 꾸준히 교류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세 도시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2015년부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축이 돼 변함없이 교류를 담당하고 있고, 니가타 역시 2015년의 담당자가 여전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칭다오는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애정만큼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세 도시 모두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비결이라면 비결일 듯 하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청소년과 공연예술단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데는 시민들의 체감만큼 큰 원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TCS: 3도시가 매년 하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과 공연단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후속사업의 내용, 시기 등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한 시장: 세 도시의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서신 교환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연말 즈음이면 다음해 사업의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청소년 교류의 경우 각국 학교의 시험이나 방학 등 학사 일정이 다르다보니, 일정을 조율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도시 공연예술단의 현지 파견이 어려워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각 도시의 대표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류사업을 추진해왔던 만큼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일도 주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 전환기를 맞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달라지는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TCS: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온라인 교류, 영상교환 등 새로운 교류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앞으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한 시장: 물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환한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제교류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류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라인의 장점이 많다고 해도 눈앞에서 보고 듣고 대화하고, 숨소리마저 공유하며 느끼는 대면 교류의 감동을 뛰 어넘을 수는 없겠죠. 문화예술교류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각 도시마다 인터넷 전송 속도라든가 네트워크 시스템의 상황 등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이고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또 올 수 있기에, 지금의 경험을 자산으로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통합 교류방식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CS: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후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TCS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한 시장: 위에서도 답변했듯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그리고 앞으로 선정될 도시들이 그 어떤 정치·경제적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중일 3국의 긴밀하고도 탄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TCS가 국내외 언론 미디어와도 두터운 신뢰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창구가 되어준다면 한중일 3국의 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CS가 앞으로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한중일 3국의 여러 지방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소망합니다.

TCS: 현재 추진/참여 중인 한중일 3자 교류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연간 예산규모, 교류사업 참여인원 등) . 아울러 2022년 예정인 한중일 3자 교류사업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왕 시장: 양저우는 고대부터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도시였습니다. 건진대사(鑑真)의 고향이자 한국의 한문문학의 기초를 놓은 최치원(崔致遠)의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합니다. 양저우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한국의 경주, 일본의 나라와 우호도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양저우는 '아시아 문명 대화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국에서 첫번째 동아시아 문화도시(CCEA)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ASEAN+3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출범식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아세안 문화도시에서 온 200여 명의 정상과 귀빈들이 양저우에 모였습니다. 본 회담 결과인 '양저우 이니셔티브'가 제2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연설문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세계운하도시포럼(World Canal Cities Forum)을 개최하여, 한국 순천, 일본 기타큐슈등 자매도시의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온라인 연설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2020년도 포럼에서는, 세계 운하 도시 문화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저우 이니셔티브'를 공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6월에 열리는 제1회 장수 '일대일로' 우호도시 협력 고위급 포럼에 한국 경주와 일본 나라를 초청할 예정이며 두 우호도시의 시장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도시의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우호도시 단편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저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 우호 도시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TCS: 해당 3자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또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왕 시장: 양저우는 일본, 한국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한국의 여수, 용인, 제주, 대구와 일본의 가라쓰, 아쓰기, 나라와 우호도시 관계를 잇달아 수립했습니다. 양저우-타이저우 국제공항은 한국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 직항편을 열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는 서로를 더 많이 방문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한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열린 소통이야말로 이 시대의 트렌드이자 발전의 흐름이며 국민의 기대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2020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양저우를 시찰했을 때 "양저우는 고대 문명, 문화, 역사의 면에서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도시"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적 의미 탐구 강화와 한일과의 문화 교류 및 경제 무역 협력 강화, 공동 홍보, 지역 경제 및 문화 번영 촉진과, 3국 간의 상호 이해 촉진을 통해 '미래를 공유하는 인간 공동체가 되기 위해 공헌해 나갈 것입니다.

TCS: 교류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왕 시장: 현재 3개 도시는 교류와 협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확장의 여지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개 도시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변화에 따른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페이스 투 페이스' 방식을 '스크린 투 스크린'으로 바꿔나가면서 국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류의 내용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문화탐방에 치중했으나, 국제화 심화에 따라 기술, 인재 및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도있는 3자 교류도 가능해졌습니다. 양저우에는 양저우 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고등 직업 및 기술 대학이 있고, 나라시와 경주시도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세 도시 사이의 산업도 어느 정도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올해 RCEP(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CS: 코로나19 확산이 교류사업에 가져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왕 시장: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세 도시 간의 교류 횟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둘째, 소통 방식이 과거 대면 소통에서 온라인 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교류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무역협상, 투자촉진 등 현장활동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양저우는 현재 '디지털 양저우'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관광', '온라인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높은 과학 및 기술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CS: 아직까지는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한중일 3자간 새로 추진해보고 싶은 교류분야 혹은 사업이 있다면?

왕 시장: 올해는 RCEP가 발효된 첫 해입니다. 중국, 일본 및 한국은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다양한 구성원 구조 및 가장 큰 개발 잠재력을 가진 이 글로벌 자유 무역 체제에 합류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3국의 경제 통합 수준을 높이고 공급망과 산업 체인의 상호

연결을 공동으로 촉진하며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RCEP 이행을 통해 일본 및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역교류의 확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양저우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바이오, 신의료기기, 신화학소재, 섬유 및 의류 분야의 많은 상품이 일본과 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양저우의 대일, 대한 수출입액이 각각 1.3%와 6.9% 증가했습니다. 양저우는 RCEP가 가져다온 혜택을 잘 활용하고 더 많은 산업과 기업이 지역 산업 사슬의 통합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호응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공급망 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고, 해외 창고와 해외 하위 시장의 발전을 장려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에서 구매, 세계로 판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저우는 항상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유치 투자 촉진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530'투자 촉진 조치(5년 동안 30개의 포춘 글로벌500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니쓰보와 스미토모 세이카, 한국 우리바이오 및 파워로직스와 같은 100개 이상의 한·일 기업이 양저우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 연결 촉진'에 주목했습니다. 2021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양저우가 국제 경제, 무역 및 관광 축제인 '불꽃 행진'과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총 180개의 계약 프로젝트가 체결되었으며, 그 중 선진 제조 및 현대 서비스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액은 1224.6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2022년 중일(양저우) 경제문화교류, 2022년 최치원 학술세미나 및 한중국제협력포럼 등의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한국 및 일본의 대기업이 양저우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 기술 혁신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학 및 교육 자원이 풍부하고 양저우 기업이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R&D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휴먼이커지(传艺科技)와 광운대학교 간의 프로젝트 근 품기전(金丰机电)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간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R&D 프로젝트가 성급(省级) 과학 기술 협력 프로젝트로 인정 받았습니다. 양저우는 600만평방미터의 과학기술산업단지를 건설하였고 총규모 300억위안의 산업지도기금, 20억위안의 창업혁신기금, 5억위안의 특별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의 과학 및 기술 성과를 개발 및 상업화하여 국내에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현재 기업을 위한 '기술적 변혁 및 디지털 변혁' 실행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천 개의 산업 기업을 포괄하는 수천 개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구현될 예정입니다. 산업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분야에서 과학 및 인력차원의 우위를 가진 한국 및 일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양저우 기업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CS: 한중일 3자 교류사업 관련하여 SNS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활용 현황과 방식을 소개해 주세요.

왕 시장: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우리 시는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포털 웹사이트, 인터넷 인플루언서, 여행 전문가 및 기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바이두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양저우' 검색 결과가 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아세안+3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공식 웹사이트(중국어 및 영어)와 공식WeChat 계정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각 게시물에서 동아시아의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기원과 인문적 매력, 관광지로서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식 WeChat 계정의 총 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둘 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아세안 문화도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양저우 이슈(扬州发布)' 앱과 양저우시의 해외 소셜 미디어 계정(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양저우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양저우의 문화를 홍보하고 시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며, '양저우의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고 '양저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TCS: 3자 교류사업이 해당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상호 인식변화, 관광객수, 방문객의 다양화, 유학생 인구 변화 등)

왕 시장: 사람들 사이의 긴밀한 접촉에서 비롯된 우정은 건전한 국가 간 관계의 열쇠입니다. 문화 교류는 사람들 사이의 다리를 놓고 긴밀한 소통의 길을 엽니다. 양저우는 항상 문화적인 유명인사들을 한국 및 일본과의 교류를 심화하는 연결 고리로 사용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양저우와 나라가 공동으로 일본 도다이지(東大寺)의 감진 화상 좌상을 양저우로 귀향 및 전시하였고 이어서 '감진 정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두 도시의 시민들의 '감진(벚꽃)길' 건설 및 기타 활동 후원하기 위한 공동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양저우에 중국 외교부가 승인한 최초의 외국 명인 기념관인 최치원 기념관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감진(벚꽃)길과 최치원 기념관은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저우시는 3자간의 우호와 협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정부 기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양저우시, 한국 여수시, 일본 카라쓰시는 '3국 우호도시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일 지역교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 세이부신문과 양저우 정부가 협력하여 '감진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AAF)에 의해 골드라벨 마라톤 이벤트로 등록되었으며 매년 3만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양저우를 방문한 인바운드 숙박 관광객 수는 16,100명 이었으며, 그 대부분은 한국인과 일본인이었습니다.

동시에 교통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본, 한국과의 시공간 거리를 더욱 단축하고자 합니다. 양저우는 상하이 수도권권과 난징 수도권권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저우-타이저우 국제공항은 한국의 제주와 일본의 오사카를 포함하여 13개의 국제(지역) 노선을 개항하여, 연간 이용객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는 양저우-타이저우 국제공항의 2단계 프로젝

트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여객 처리량은 10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며 화물 및 우편 처리량은 36,000톤에 도달할 것이므로 이는 인적교류와 생산요소의 순환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양저우시는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양저우, 일본 및 한국 간의 교환 유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교 초기 수십 명에서 오늘날 562명에 이르기까지 3개 도시는 대학 및 학술교류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TCS: 한중일 지방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정부와 TC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왕 시장: TCS는 3국의 지방도시의 교류를 촉진하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한편으로 한중일 정부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3국 비즈니스 부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며,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한중일의 지방 도시를 다양한 활동에 초청하여 교류의 레벨과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무국은 고유한 지위를 활용하여 3국 도시 간 교류의 성공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쉽고 효과적이며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지방 도시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CS: 중국 내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쳤나요? 양저우가 2020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왕 시장: 현재 중국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신청할 경우, 다음 6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신청입니다. 신청 도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 문화·관광 부서에 제출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성(省)급 예비심사입니다. 해당 성의 문화·관광부서는 신청 도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더 기반이 튼튼한 도시를 선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후보도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여유부는 성별 예비심사를 거쳐 후보도시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후보도시의 준비작업입니다. 후보 도시들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원 조건 및 합격 점수 기준을 참조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레벨 심사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전문가를 초청해 '집단지음검토, 예고 없는 현장방문, 최종검토방어' 등의 절차에 따라 심사·접수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승인입니다. 평가 결과는 문화관광부 승인을 위해 보고되며, 선정 결과는 문화여유부의 국제교류협력국으로부터 선정된 도시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해당 결과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됩니다.

양저우의 성공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노력에 기인합니다. 첫째,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에서 양저우의 역사적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양저우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문명 상호 학습의 중요한 통로이자 '통시적' 도시입니다. 민족 문화 교류의 역사, 특히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저우시는 한중일 문화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소개할 때 '두 명인(감진과 최치원)', '하나의 강(베이징-항저우 대운하)' 그리고 '하나의 시(꽃이 만발한 3월의 양저우)' 등 양저우의 고대문화와 현대 문명의 아름다움을 모두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두번째, 양저우의 국제문화교류의 역량을 활발하게 높이는 일입니다. 양저우는 문화 장소 개발, 문화 보존, 문화 변형 및 문화 교류 등 많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중국 양저우 대운하 박물관, 동관 역사 문화 거리, 감진 기념관, 최치원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보존과 관련해서는 '양저우 고성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UN 해비타트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 변형 측면에서는 양저우시는 고대 양저우의 시(詩)와 서예, 중국 연구 및 전통 오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중국대운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주요 신청도시로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아프리카 등과 광범위한 교류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TCS: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참가가 해당 지역과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왕 시장: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국제 문화도시 시상 행사이며, 3국 문화교류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동아시아 지역 문화 협력의 최고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수준을 주도하는 국제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저우를 예로 들면 2019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한일 경제무역 교류가 '새로운 길'에 진입했습니다. 양저우시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양저우 활동연도 실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저우에서 아름다움 찾기'를 주제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양저우 활동의 해', '동아시아 문화수도 연합 워크숍' 및 2020년 세계 운하도시 포럼을 비롯한 한중일 서예 및 전각 공동 전시회, 대운하 문화 관광 진흥 등의 일련의 국제 문화 교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양저우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 무역', '동아시아 문화도시 + 음식', '동아시아 문화도시 + 스포츠', '동아시아 문화도시 + 원예'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기획하여 양저우의 매력을 여러 각도로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도시 간의 전면적인 경제, 사회 및 문화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도시 문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시의 발전과 경제 번영을 촉진하며 문화가 주도하는 도시의 변화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

TCS: 대부분의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선정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기타큐슈시, 순천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대략적인 사업방향)이 있다면?

왕 시장: 양저우는 2019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로 청소년 온라인 교류, 문화 문화 상품 교환 및 창의 음식 전시, 단편 영상 공모전 등 동아시아 도시 간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양저우는 한국 순천시와 일본 기타큐슈시에게 방역물자를 기증하며 방역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순천은 우리에게 KF94 마스크 5000장 이상을 기증했으며, 일본 기타큐슈는 양저우에 48세트의 방호복을 기증하며 세 도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

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서예 및 회화 전시회와 2022 중일(양주) 경제 문화 교류의 부대 행사인 '문화 창작 제품 시장'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순천 및 기타큐슈와 우호자매 관계 구축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향후 3개 도시 간 우호 교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TCS: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후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TCS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왕 시장: 현재 코로나19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 경제 및 무역 교류가 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대면 교류 및 대규모 박람회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TCS와 동아시아 도시들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과 인재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3국의 기업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창을 제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TCS가 동아시아 국가와 도시 간의 상호 이해, 신뢰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 및 연결 고리가 되고, 더 많은 3자 협력 활동(현 단계에서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을 추진하며, 지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더 많은 자신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TCS의 양저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TCS 협의사회가 양저우를 방문하여 우리 시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양저우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다른 나라들에게 홍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무라오카 츠구마사 지사

TCS: 현재 추진/참여 중인 한중일 3자 교류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연간 예산규모, 교류사업 참여인원 등)

무라오카 지사: 저희 야마구치현과 우호·자매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상남도과 중국 산둥성 세 지역 사이에서 해마다 순회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심포지엄 개최 및 대학생 문화교류, 고등학생 스포츠 교류, 전통 예능 축제 개최 등 각 분야에 있어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은 야마구치현 내의 관련 단체 및 기업, 학생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TCS: 해당 3자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또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무라오카 지사: 산둥성과 야마구치현은 1982년에, 경상남도과 야마구치현은 1987년에 각각 우호·자매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3년에 경상남도과 산둥성이 우호 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경상남도-산둥성-야마구치현 간의 3자 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에 1997년에 산둥성과 야마구치현의 우호 협정 체결 15주년, 경상남도과 야마구치현 자매 협정 10주년을 계기로 세 지역의 광역 협력과 정책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교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TCS: 코로나19 확산이 교류사업에 가져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무라오카 지사: 지금까지의 교류사업은 그해의 주최 지역에서 현지 개최라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이동이 어려워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개최에 비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단체 분들의 협력을 더욱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등 이점도 있었습니다.

TCS: 아직까지는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한중일 3자간 새로 추진해보고 싶은 교류분야 혹은 사업이 있다면?

무라오카 지사: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란 것은 없지만 3지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래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복지 분야 교류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TCS: 3자 교류사업이 해당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상호 인식변화, 관광객수, 방문객의 다양화, 유학생 인구 변화 등)

무라오카 지사: 다른 인바운드(외국인의 방일 여행 사업) 관련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사업이 관광객 및 유학생 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에 협력을 해주신 관련 단체 분들에게서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조치를 알게됨으로써 지금까지는 다른 시야를 갖게 되었다.", "평소에 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자극을 받았다."와 같은 소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국제적인 시야 확보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TCS: 한중일 지방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정부와 TC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무라오카 지사: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다른 지자체의 사업 실시 현황을 참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TCS가 편찬하고 있는 조사 보고서는 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을 향후에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중일 교류를 향후에도 한층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사이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 교류 활동 추진이 이어지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CS: 2022년 예정인 한중일 3자 교류사업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무라오카 지사: 2022년도 교류사업으로 산둥성이 주최하는 각 지역 전통 악기를 사용한 청소년 음악 교류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둥성 현지에서 개최될지, 온라인으로 개최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TCS: 매년 3도성현 간 교류실무회의와 함께 다양한 교류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 회의 의제와 교류행사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무라오카 지사: 매년 교류 사업과 동시에 개최하고 있는 실무자 회의에 있어 내년도 사업 내용에 관한 제안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지역은 순회 개최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주최 지역이 사업 내용을 제안하여 이를 주축으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을 세 지역이 토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TCS: 1997년부터 매우 장기간에 걸쳐 한중일 교류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그간 주목할 만한 교류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라오카 지사: 2014년에 산둥성에서 청소년 스포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탁구 우호 교류 시합이 실시돼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 다. 이듬해에는 경상남도에서 청소년 농구 교류사업이 기획되었으며, 2017년에는 아마구치현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청년 전 통 예능 무대 공연이 개최되는 등 청년 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여러 분야에 서 교류하여 서로 이해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기르는 것은 향후 세 지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도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TCS: 아마구치현은 중국 산둥성, 한국 경상남도과 각각 우호·자매협정을 맺은 이후 3자교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양자교류를 3자교류로 확대한 효과/장점이 있다면? 양자교류와 비교하여 3자교류의 어려운 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 지 말씀해 주세요.

▶ **기존의 양자 간 교류에서 삼자 간 교류로 확대한 효과와 이점**

무라오카 지사: 3개국, 3지역이 동시에 교류함으로써 한 번의 교류사업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와 세계적인 시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사업 규모나 교류 분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등이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 **양자 교류에 비해 삼자 교류가 갖는 어려움과 극복방법에 대해**

무라오카 지사: 세 지역의 교류는 두 지역 간의 교류에 비해 사업 내용의 결정 및 일정 조정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메일 및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세 지역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렵기에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연락을 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TCS: 최근 노인복지 분야 교류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무라오카 지사: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민간 관련 단체를 포함한 방문단을 파견해 각 지역의 노인 복지 시설의 사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력기관

지방정부

한국

- 서울특별시청
- 광주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강원도청
- 경기도청
- 경남도청
- 경북도청
- 전북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경주시청
- 군포시청
- 순천시청
- 여주시청
- 전주시청
- 청주시청
- 청녕군청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중국

- 베이징시 인민정부
- 상하이시 인민정부
- 라오닝성 인민정부
- 산둥성 인민정부
- 산시성(陝西省) 인민정부
- 장쑤성 인민정부
- 지린성 인민정부
- 닝보시 인민정부
- 다롄시 인민정부
- 둔황시 인민정부
- 린이시 인민정부
- 베이징시 동청구 인민정부
- 사오싱시 인민정부
- 시안시 인민정부
- 쑤저우시 인민정부
- 지난시 인민정부
- 양저우시 인민정부
- 윈저우시 인민정부
- 창사시 인민정부
- 취안저우시 인민정부
- 칭다오시 인민정부
- 하얼빈시 인민정부
- 한중시 인민정부

일본

- 도쿄도청
- 가나가와현청
- 나가사키현청
- 돗토리현청
- 아마구치현청
- 오이타현청
- 에히메현청
- 이시카와현청
- 교토시청
- 기타큐슈시청
- 니가타시청
- 요코하마시청
- 가나자와시청
- 가라쓰시청
- 나라시청
- 도쿄도 도시마구청
- 도쿄도 메구로구청
- 사도시청
- 아츠기시청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한국

-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 제주국제연수센터
- 청녕군 우포따오기사업소
-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중국

- 문화여유부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

- 문화청
-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사무국

박물관, 도서관 및 대학

한국

- 서울역사박물관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전주시립완산도서관
- 경남대학교

중국

- 베이징 수도박물관
- 뤼순 박물관
- 선양고궁박물관
- 쑤저우 도서관
- 취푸사범대학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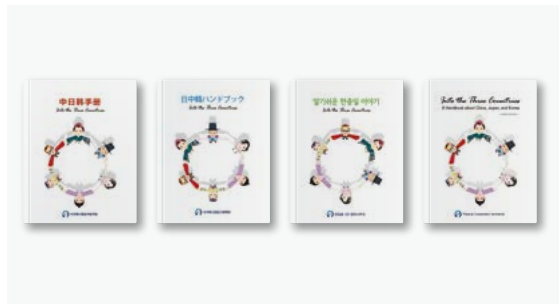
- 에도도쿄박물관
-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 역사박물관
- 가자나와 우미미라이 도서관
- 나가사키대학
- 아마구치현립대학

기타 TCS 출판물 및 웹사이트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이 어휘집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관련 전문가들 간 교류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3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어휘 658개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중·일 3개 언어로 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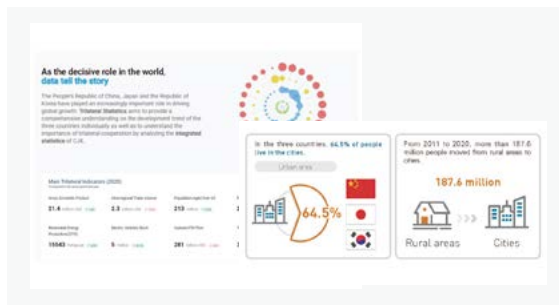
알기쉬운 한중일 이야기

이 책은 한중일 3국의 지리, 국기, 언어 등 기본정보와 의식주를 비롯한 각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 양식의 특징을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중·일·영 4개 언어로 발간되었으며, 한중일 3국과 관련한 흥미로운 시각자료를 담았습니다.



2011-2020 3국 경제 보고서

한국, 일본, 중국의 6개 저명한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3국 간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및 노력을 제시합니다. 이어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3국 협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3국 통계 허브

3국 통계 허브는 통합된 통계 분석을 통해 3국의 발전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3국 협력 간 협의체와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TCS의 모든 출판물은 공식 홈페이지(www.tcs-asia.org)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2022」

2022년 6월 인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우: 03185)

T +82-2-733-4700

F +82-2-733-2525

E tlr@tcs-asia.org

편집 · 취재 · 자료수집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회·문화부
프로젝트팀	손하예슬, 김주영, 닝 지에(寧傑), 이이다 사에코(飯田彩恵子), 이윤주, 사와야마 료스케(澤山凌介), 이정승, 쉬 슈오(徐碩), 토다 아키히데(戶田明秀)
검토	어우 보첸(歐渤苧), 백범흠, 사카타 나츠코(坂田奈津子) 김지은, 리 관유, 야마모토 마사미
전문가자문위원회	김진아 대한한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장 장 전싱(張振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판공실 부주임 멘주 도시히로(毛受敏浩) 일본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

Copyright © 2022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비매품/무료
95350



9 791188 016938

ISBN 979-11-88016-93-8 (PDF)

www.tcs-asia.org

